

리아호나



리하이의 꿈에서
여러분을 찾아보십시오, 26쪽

현란한 발 놀림과 기타 상호 향상 모임에
관한 추억, 32쪽

모든 연령층에 단합을 촉구하며, 14, 22, 40,
56, 60쪽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이때를 위함, 엘스페스 영

에스더는 사촌인 모르드개 밑에서 자랐습니다. 왕이 왕후가 될 사람을 찾자 처녀들이 몰려 왔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불러갔고,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모르드개는 하만이라는 대신에게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계락을 꾸몄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꾸민 조서를 보고 애통해하며 금식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스더 4:14).

에스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 나도 ……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스더 4:16).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계락을 알렸고, 자신도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에스더가 보인 용기로 유대인은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리아호나, 2010년 8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성전 축복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예배에 합당해져야 하는 우리의 책임

표지
 앞: 생명 나무, 카주토 우오타.
 뒤: 삽화: 로빈 루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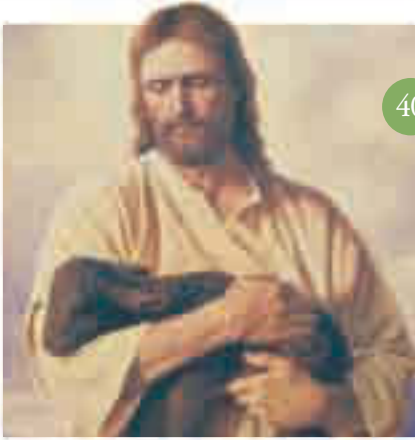


특집 기사

- 22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아담 시 올슨
 디아나의 가족은 비극을 겪었지만 함께 노력하여 굳건함을 잃지 않았다.
- 26 리하이의 꿈에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리하이의 꿈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 32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 교회 지도자들이 청소년 시절에 경험한, 기억에 남는 상호 향상 모임을 회상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0 교회에서 봉사하며: 효과적으로 말씀하기 마커스 웨리든
- 12 우리의 믿음: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십시오
- 14 복음 교전: 단합 매리온 지 롬니 회장
- 17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셰리 크렐
- 18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경전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웨럴 시 렌트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72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카렌 폴



40

40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43 내 삶의 복음: 가족이 되어
레이첼 닐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실마리: 가족



50

44 질의응답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표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조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6 포스터: 좋은 아침

47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1편 38절

48 선교 임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목으로 그를 보내 주셨다
조니 랄슨 마샬

50 세미나리나, 운동이나?
캐롤라이나 테노리오 피카도
숙제와 운동과 세미나리를 할 시간이 없었다. 무엇을 포기하면 좋을까?

52 한 사람을 위해, 모두를 위해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독일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에서 서로의 간증을 강화한다.



70

56 우리 모두는 신발이에요
사라 커틀러 및 라이언 존슨
새로 사귄 친구들과 나 사이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비슷한 점이 많았다.

58 열 살짜리 교사
바비 미란다 및 조지 미란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나누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58 구원의 계획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성구 및 모형.

60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62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산드라 태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4 여호와와 백성들을 구한 에스더 왕후
다이앤 엘 맨검
에스더는 이때를 위해 선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66 따뜻한 품에 안긴 제니퍼
제니퍼 리스
기도를 마치자 울적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67 우리들 이야기

6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0년 8월호, 제47권, 제8호
리아호나 09288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헬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장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벨스,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로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할비그, 오시히고 기꾸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인 편집인: 래리 윌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라켄 포터 곤드,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레이 오테카구, 조슈아 제이 피카, 채드 이 패리스, 쉐인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돈 엘, 제니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인 비서: 로벨 투서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거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킴 핀스타머카,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코트 엠 무어,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 529호, 제47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송호

번역 책임자: 조 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광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알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ugust 2010 Vol. 34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성인



이번 리아호나에는 단합에 관한 기사가 몇 가지 실려 있다.(14, 22, 40, 56, 60쪽 참조)
www.gospeletopics.lds.org에서 **단합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읽어 보도록 한다.**(영어)

청소년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22쪽)에는 Sacsayhuamán(사크사이우아만) 잉카 유적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실려 있다. **더 많은 사진을 보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어린이

기쪽에 나오는 에스더와 왕 그림을 색칠한다. 그런 다음 www.liahona.lds.org에서 **색칠하기를 더 찾아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기타 교회 자료는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성전 축복

유 럽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인 스위스 성전이 건립되자 부모님께서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저는 열여섯 살이었고 저희 사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단에 무릎을 꿇고 신권 권능으로 지상에서 인봉되었으며, 영원히 인봉될 수 있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장엄한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저는 우리가 가족 인봉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일은 세계 성전 사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은 국적,

문화, 정치 성향 등에 관계없이 참으로 온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해 세워집니다.

성전은 선이 이기리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거합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1827~1901)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초석이 놓일 때마다, 성전이 완공될 때마다 …… 지상에서 사탄의 힘은 줄어들고 하나님과 경건의 능력은 증대됩니다.”

성전이 지상에서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들은 당연히 실제로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더 많은 빛과 지식을 받고 엄숙한 성약을 맺습니다. 성약을 따를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전에서 인생의 성스러운 목적을 배우고 참된 물질적, 영적 방향을

찾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성전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이 신성한 구속 사업에서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고 비이기적인 봉사이며, 필멸의 육신에 거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하여 시온 산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현재 성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에게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성전 추천서는 우리의 충실함과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왼쪽 사진: 율리우스 베른 성전; 크리스마스 미션; 중국 성전; 홍콩 성전; 크레이그 데이먼드; 네마크 쿠레향관 성전; 크레이그 데이먼드; 알스 더블류 카터; 이브라힘 알리; 오트루프 사탄삼파; 제이 스토프 쿠어는 합성사진; 크레이그 데이먼드, 월스 더블류 카터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21)

주님께 헌납된 이 성스러운 건물로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동안,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하늘이 지상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과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계 곳곳에 의로움이 증대될 것입니다.

■

주
1. George Q. Cannon, “The Logan Temple”, *Millennial Star*, 1877년 11월 12일, 743쪽.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대 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말로만 전할 때보다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할 때 더 잘 배우고 오래 기억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67쪽 참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전 사진을 게시한다. 기사를 읽은 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토론한다. 방문하는 가족의 어린 자녀들에게 성전을 배경으로 서 있는 가족 그림을 그려 보라고 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한두 가지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한다.”(180쪽) 방문하는 가족과 함께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전하는 말씀을 읽은 다음,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사용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이 될 목표를 각자 하나씩 적어 보라고 권유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민디 레이 홈즈

나는 청소년 시절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기회가 많았다. 갈 때마다 좋았지만 특히 이 일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열여섯 살 되던 해, 열두 살이 된 여동생은 처음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다. 동생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 우리는 대리 침례를 마치면 함께 성전 밖을 거닐기로 했다.

샌디에이고 성전 뜰 한쪽에는 전망대가 두 개 있다.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전망대에 서면 샌디에이고 성전 옆에 있는 혼잡한 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그날 나는 성전의 높은 곳에 서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얻었다. 뽕뽕 달리는 자동차와 복잡한 상가, 낙서로 더럽혀진 도로 표지판이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말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기에 속하고 싶진 않아. 저곳은 삶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이야.' 나는 항상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세상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나는 돌아서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았다. 복음 지식과 그 지식으로 얻은 깨달음에 감사했다.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높은 지대를 찾았음을 알았다.

나는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항상 그분 편에 서겠다고 약속드렸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거룩한 곳에 선다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87:8 참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세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성전이 건립되면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커지고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그림을 색칠하세요. 성전 아래에 있는 초석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나타냅니다. 미래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도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장소

살아 있는 동안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베푸는 일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부모에게 영원히 인봉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곳

합당하고 순종하는 생활



성전 예배에 합당해져야 하는 우리의 책임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성전에서 의식을 받으면서 맺는 성약은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가는 허가증이 됩니다. 이러한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는 왕국 건설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성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된 모든 축복은 성약에 충실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

교회 여성들은 성전 축복을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아직까지 성전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추라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가서 그 경험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시각과 이해를 넓히라고 권유하십니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기 위해 성전에 갑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친척들에게 승영에 필요한 의식을 받을 기회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할 때 받는 영적인 힘과 계시를 누립니다. 속죄가 가져온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충실히 생활하며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킵시다.”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성구에서
이사야 2:2~3; 교리와 성약
109:22~23; 110:8~10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방문하는 자매들이 성전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또 참석하도록,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성전 축복을 받고자 희생한 초기 자매들의 전통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3. 나는 어떻게 성전 축복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성전 예배를 하려는 자매들의 소망에서 상호부조회가 생겨났다고 가르쳤다.

“키틀랜드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자매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깨뜨려 작은 알갱이로 갈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조각들은 회반죽과 섞여져 성전 벽에 발라졌습시다. 그 벽은 햇빛과 달빛을 반사하였고 그래서 건물 외관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가진 돈이 거의 없었지만 신앙만큼은 풍성했던 형제들은 힘과 자원을 들여 주님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자매들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에드워드 더블류 톨리지는 자매들이 성전 휘장을 바느질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매님들은 항상 곧바로 도움을 주시는군요. 모든 훌륭한 일은 늘 자매님들이 제일 먼저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도 마리아였는데, 이제 성전 내부에 관한 일도 자매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군요.’ ……

나부에서도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몇몇 자매들이 작업복 상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중 스무 명은 1842년 3월 17일 목요일에 선지자의 상점 2층 방에서 모였습니다.”²

주

1.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113, 114쪽.
2. Gordon B. Hinckley, “Ambitious to Do Good”, Ensign, 1992년 3월호, 2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엘마서 37:6)

위대한 삶을 기리며

매리온 지 롬니 (1897~1988) 회장

매리온 지 롬니는 멕시코 후아레스 식민지, 후기 성도 공동체에서 태어나 열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1910년에 일어난 정치 혁명으로 롬니 가족을 비롯한 그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목숨을 부지하느라 힘든 시기였습니다.” 롬니 회장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자기 목숨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¹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다호 주 오클리에서 생활하면서 매리온의 아버지와 삼촌은 양쪽 가족을 위해 공동 살림을 했다. 어떤 달은 겨우 80달러로 열일곱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다. 지금 십일조를 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들은 추운 겨울날에 어린 매리온을 감독에게 보내 십일조를 전달하게 했다. 롬니 회장은 그 이후로 십일조를 내는 일을 어려워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매리온 지 롬니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근면이 무엇인지 알았다. 매리온은 191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4쪽에서 롬니 회장의 복음 고전 말씀인 “단합”을 참조한다.



2년간 리스 대학을 다닌 후, 호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는 1924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아이다 젠슨과 결혼했다. 매리온은 일을 하면서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녔고 이후 1929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서 종사하였다.

극심한 대공황기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감독으로 봉사한 매리온은 교회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가 되고 그 후 사도가 되어서도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1972년부터 1985년까지 매리온은 제일회장단에서 해롤드 비리 회장의 보좌로, 그 후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주

1. 매리온 지 롬니, 1974년 10월 18일에 Salt Lake Institute of Religion에서 전한 말씀.

성공적인 상호 향상 모임 만들기

- 어떤 활동을 하든 향상 개최 기도를 한다.
- 지도자 직책에 있는 청소년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다.
- 활동에 온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돕는다.
- 복음 원리와 관련된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 활동을 마친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뒷정리를 도와달라고 권유한다.



웨일스

선 교사들이 웨일스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840년이였다. 녀 달도 지나지 않아 북웨일스에는 150명 규모로 회중이 조직되었다. 남웨일스의 경우, 처음에는 가르칠 사람들을 찾지 못했지만, 약 15년 후에는 웨일스 지역 개종자 중 80퍼센트가 남부 웨일스 출신이었다.

1845년 1월, 미국에서 교회에 가입한 웨일스 출신 댄 존스가 선교사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존스는 몇 가지 교회 출판물을 발행했으며 교회를 강화하는 일을 도왔다. 1846년에 발간된 웨일스어 찬송가는 영어 외 언어로 된 첫 번째 후기 성도 찬송가이다. 웨일스 지역 첫 번째 후기 성도 집회소는 1849년에 세워졌다. 당시 웨일스에는 3천 6백 명 이상의 개종자가 있었다.

초기 웨일스 개종자 중 상당수는 유타 주로 이주했다. 그 중에는 합창단을 조직한 존 페리도 있었는데, 이 합창단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시초가 되었다. 웨일스 지역 첫 번째 스테이크인 머서티드빌 스테이크는 1975년에 조직되었다.

*영국 체스터 스테이크에 소속된 다섯 개 와드 및 지부도 웨일스 지역에 있다.



웨일스의 교회	
회원	9,110명
스테이크*	27개
와드 및 지부	17개

기쁨을 얻는 열쇠

“봉 사는 기쁨을 얻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돈과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할 때 진실하고 순수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2002년), 86쪽.

순종에 따르는 축복

두 달 동안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나자 선교사는 십일조의 법을 가르치며, 교회 회원이 되면 십일조를 내라고 권유했다. 제한된 수입으로 십일조를 내는 일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선교사에게 그런 속내를 털어놓기도 전에 토론은 끝이 나버렸다.

그 주 일요일, 교회에 가서 지부 회장님께서 나를 반겨 주셨다. 지부 회장님에게 십일조에 대해 묻자 그분은 모임이 끝나면 따로 시간을 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선교사는 제가 회원이 되면 수입 중 십분의 일을 교회에 내야 한다고 해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고민을 들은 지부 회장님은 물론경을 펴서 제3니파이 24장 10절을 읽어 주셨다.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 형제님, 주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신 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긴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다음 달에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주님을 시험해 본 후, 그분께서 정말 형제님을 축복하시는지 보는 게 어떨까요?”

얼마 후, 나는 십일조를 내 보기로 했고, 교회 회원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쌓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테 광고, 타이완



효과적으로 말씀하기

마커스 웨리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예배당에 앉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기회 중 하나가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연사는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고,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인용문과 성구를 사용하고,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합니다.

열의 보이기

우리가 복음에 열의를 쏟을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불 같은 열정을 보며 똑같은 느낌을 느껴 보고 싶다는 소망을 더욱 강하게 품습니다. 반면에 우리 말씀이 시작부터 사과와 부정적인 말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신뢰를 잃고, 전하려는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영을 거스르게 됩니다. 자신이 준비한 주님의 메시지를 열정을 다해 활기찬 마음으로 자신 있게 전할 때 청중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야기와 경험 나누기

힘있는 이야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 청중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감화되어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귀를 쫓긋 세웁니다.

우리 모두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흥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활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적절한 예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교회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연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원고를 읽지 않고 회중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한다.
- 짧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어조에 변화를 주고 감정을 싣는다.
- 적절한 경우에는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 이따금 재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지만 모든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웃음 띤 표정을 짓습니다.

것은 아니다.

- 각 이야기 끝에서 요점을 전한다.

인용문과 성구 사용하기

주님과 그분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은 가르침과 영감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 말씀에서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건설적이고 심오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구와 인용문을 사용할 때 훌륭한 연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사용하는 성구와 인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청중이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배경과 역사를 알려 준다.
- 몇 가지 성구와 인용문에만 초점을 맞춘다.
-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기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니파이가 말했듯이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합니다.”(니파이후서 33:1)

금식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칠 자격을 얻습니다. 잘 준비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38:30 참조)

성신을 동반하고 열의를 보이며 이야기와 성구, 인용문을 적절하게 섞어 말씀한 다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간증을 덧붙이면, 회중은 고양되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



몬슨 회장님의 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는 방식과 최근 연차 대회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면 훌륭한 연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알 수 있습니다.¹

몬슨 회장님은 종종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는 기회는 특권이라고 강조하시며 그런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열의를 보이십니다.

인사 말씀이 끝나면 몬슨 회장님은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주제가 무엇인지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성구를 인용하십니다. 또한 말씀 주제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총관리 역원과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살아오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잘 나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청중이 개인적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탁월하게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생에서 직접 배운 교훈을 나누는 일이라는 점도 아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야기를 하실 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자세히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종종 전하는 메시지에 힘을 신기 위해 시를 곁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몬슨 회장님은 간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시기에 자주 힘있는 간증을 전하십니다.



주

1. 참조할 예: 토마스 에스 몬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67쪽; “기뻐하라”,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89쪽;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123쪽.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십시오

성전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 즉 약속을 맺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 영광 중 가장 높은 등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성전 성약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배우는 것들과 성전에서 맺는 성약은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성전 추천서는 우리가 감독단의 일원 또는 지부 회장과 접견을 하고 스테이크 회장단 또는 선교부 회장단의 일원과 접견을 하여 합당함을 확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추천서 접견은 자신이 합당한지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각 접견에서 신권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행위와 신앙에 관해 물을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이러한 접견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신권 지도자가 판단하면 우리는 성전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함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추천서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신권 지도자들도 우리가 합당함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추천서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2년 동안 이 추천서를 사용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복음 원리(2009년), 222~223쪽; 신앙에 충실함(2004년), "성전", 84~88쪽 참조.

제일회장단은 성전 추천서 접견 때 물어볼 질문을 정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편 저자가 말했듯이 주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표준을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 자로다”(시편 24:3~4)



신권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될 몇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



2. 교회 회장을 지지하는가 여부.



3.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고, 십일조를 내며, 이웃에게 정직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가 여부.



4. 교회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복음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고 힘써 노력하는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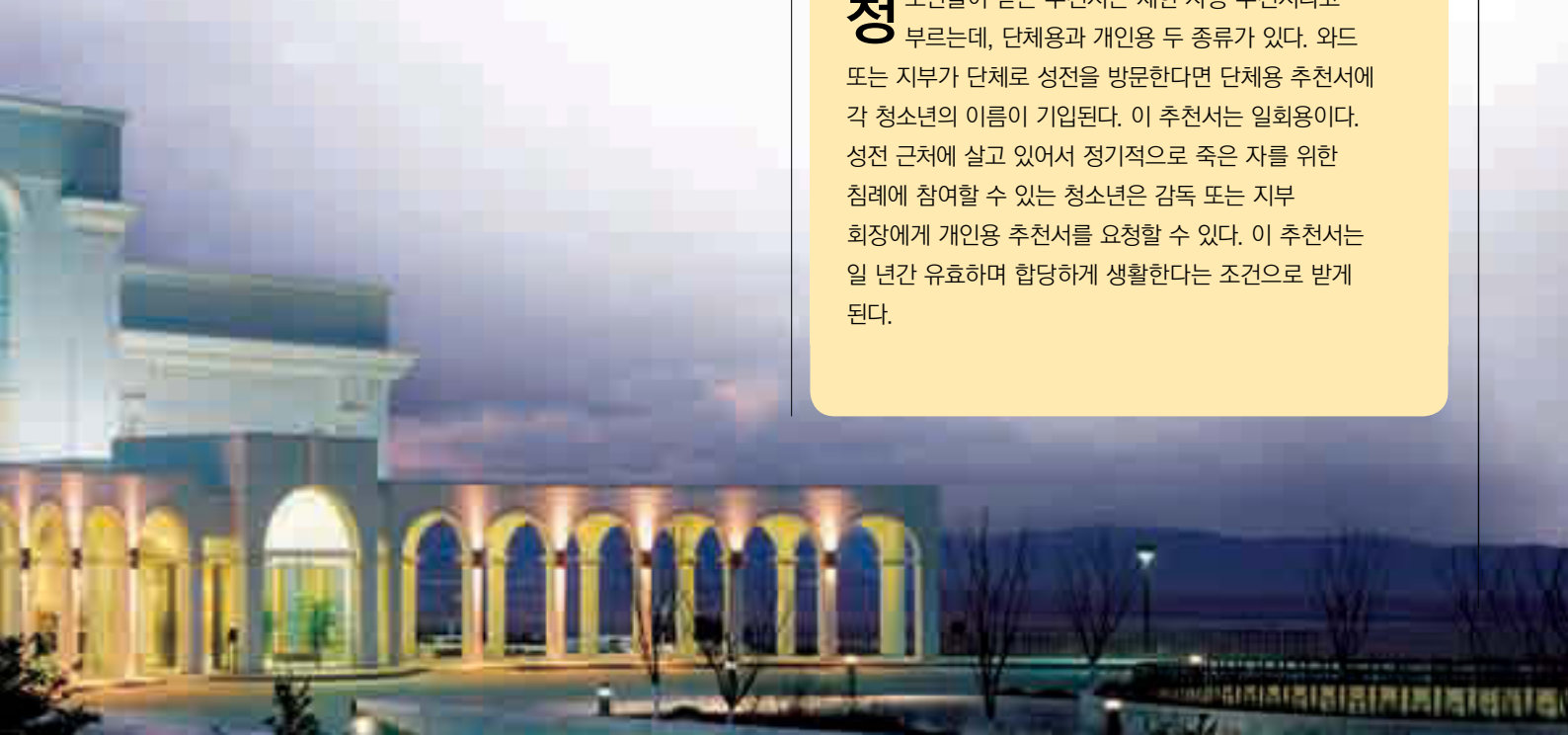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열두 살이 되면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청남은 신권을 소유해야 한다.) 추천서를 받으려면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접견 날짜를 잡는다.

청소년

청소년이 받는 성전 추천서

청소년들이 받는 추천서는 제한 사용 추천서라고 부르는데, 단체용과 개인용 두 종류가 있다. 와드 또는 지부가 단체로 성전을 방문한다면 단체용 추천서에 각 청소년의 이름이 기입된다. 이 추천서는 일회용이다. 성전 근처에 살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은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개인용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추천서는 일 년간 유효하며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조건으로 받게 된다.



단합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1951년 10월 11일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롬니 회장은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1985년 11월 10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롬니 회장은 1988년 5월 20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이 기사는 19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단합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 평등과 하나됨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경전에서 배웁니다. 마지막 만찬이 열렸던 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과 함께하시며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사도들이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구주께서 사도들만을 대상으로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그리스도 교회에서 늘 추구해야 할 목표는

회원들 사이에 단합과 하나됨과 평등을 이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로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에녹과 그 백성은 어떻게 단합을 이루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녹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던 모든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매,

그때로부터 그들 가운데 전쟁과 피 흘림이 있더라. 그러나 주가 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니, 그들이 의롭게 거하더라.

주의 두려움이 모든 민족 위에 있었나니, 그의 백성에게 임한 주의 영광이 것처럼 컸더라. 그리고 주가 그 땅을 축복하니

그리고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불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기]”(모세서 7:15~18)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라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사도행전 4:31~32)

부활하신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후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제4니파이 1:2~3)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렇게 단합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

어떤 회원들은 복음의 영과 완전히 화합하고 교회 안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이 주는 권고 및 인도에는 불협화음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단합을 이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따를 때 우리는 단합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오는 계시로 인도되며, 그 계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교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주는 권고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배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새롭게 나타난 경향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이 만연했습니다

구주께서 니파이인 사이에서 성역을 시작하시며 이 주제에 대해 가르치신 위대한 교훈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제3니파이 11:28~29)

우리가 단합을 이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제3니파이 13:33 참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따를 때 단합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빛어지는 혼란 속에서는 단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지혜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길만 걷는다면 단합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영감 받지 못한 사람을 따를 때에도 단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단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지상에서 단합과 평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역량은 우리 회원들이 이 원리를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주된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자기만의 지혜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계명의 책에 대한 서문이라고 밝히신 교리와 성약 1편에서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가 땅의 주민들에게 임하리라 예견하셨던 재앙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한 어조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걸나니”(교리와 성약 1:15~16)

단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역량은 우리 회원들이 이 원리를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의 권고에 기대지 말고 육신의 팔에 의지하지 마십시오.(교리와 성약 1:19 참조) 그 대신 주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주님을 찾으십시오.(교리와 성약 1:16 참조)

이 교회 회원들은 단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 정세와 추세를 단합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태껏 누려 보지 못한 가장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단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표준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그 말씀을 각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키우십시오. 그런 다음 응답을 받으리라는 신앙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8:18 참조) 이와 더불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며, 우리는 견고한 조직으로서 세상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단합과 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기회, 전에 누려 본 적이 없는 복음의 취지를 이해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의 왕국의 율법에 규정된 단합을 키움으로써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단합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셰리 크렐

20 07년, 나는 여자 운동 선수들을 위한 워싱턴 대학교 연회에 초대받았다. 44년 전에 나는 워싱턴 대학교 테니스 선수로 활약했고 복서 선수권 대회 복식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나는 연회에서 공로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 남편과 나는 학창시절 친구인 린다를 태우러 갔다. 내가 서른세 살일 때, 린다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린다와 나는 이날 함께 교정을 둘러보고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집과 이름표를 가지러 갔다가 내 이름이 셰리 크렐이 아니라 “샤론 크렐”로 잘못 적혀 있는 걸 보고 실망했다. ‘어쩔 수 없지.’ 하며 나는 샤론에 줄을 긋고 셰리라고 적어 넣었다. 하지만 그런 실수는 저녁 내내 계속되었다. 연회 후반부, 진행자는 나를 수상자로

소개할 때도 “샤론”이라 호명했다. 전달받은 상패에도 이름이 잘못되어 있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연회에 초대 받아서 기뻐고 행사 담당자들은 정확한 이름이 표기된 상패로 바꿔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은 부활절 안식일이었다. 남편과 나는 성전에서 행복한 금요일을 보냈고, 한 주 동안 구주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도 누렸다. 하지만 그 해 부활절에 겪은 가장 인상 깊은 일은 성찬식 모임에서 일어났다.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이 밀려왔다. 이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은 전날 밤 못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었을 때보다도 훨씬 강했다.

나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른세 살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두 선교사가 방문하면 좋을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혹시 내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내 이름을 말해 준 린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나는 구주를 증거하는 물문경을 읽으면서 그분께서 실재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구주를 알고, 그분의 교회에 가입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침례와 확인을 받는 순간 내 삶은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참으로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증거를 받은 그 위대한 부활절 아침에 또 한번 나는 변화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알고 그분들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은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 ■



체럴 시 렌트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

경전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색마분지로 경전 이야기를 구분시켜 보세요

와 드 초등학교 회장 시절, 저는 아이들이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느 경전에 나오는지 모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노아에 관한 그림은 쉽게 알아보면서 그 이야기가 구약전서에 나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두꺼운 색마분지를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경 이야기는 노란색을 덧대었으며, 경전 별로 다른 색을 이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느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린다 잘딘, 미국 유타 주

최 근에 저는 교회 회원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이 그 중심이며,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 주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그저 부모들의 노력을 도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어떻게 이끄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한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칠 뿐이며,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 원리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그런 원리를 찾아볼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십시오

니파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려면 경전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성스러운 기록에서 흡족히 취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경전을 읽는 사람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따르겠다는 내적인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 자녀에게 경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경전에서 직접 배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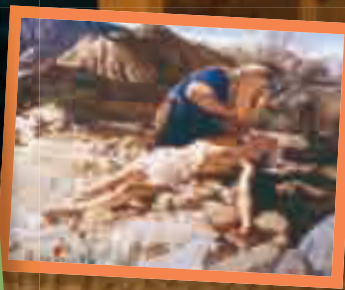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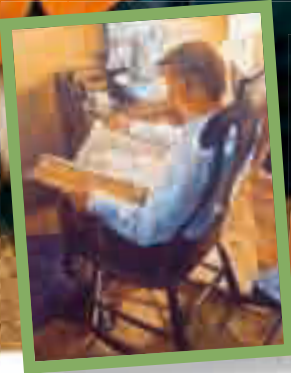
경전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경전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교리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2. 자녀들이 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3. 자녀들이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4. 배우는 내용이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하도록 격려한다.

모로나에서 10장 4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친다고 가정합니다. 공과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각자 물몬경을 펴서 다음 구절을 읽으라고 합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렌트 지매 사진 촬영: © BUSATH.COM; 사진 삽화: 존 루크; 일러스트: 약속의 땅에 도착한 라타이 여행, 이놀드 프리버그, © 1951 IR; 노아와 동물들이 살인 양수 클리크 엘리 프리버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 조셉 스티스, 데이비드 켈빈, © 1975 IR; 진한 시메리안, 켈터 웨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나의 영혼이 수장고와-이노스, 앨 앨 영; 케틀랜드 장전에 나타난 엘리야, 디나멜 루이스



경전 벽

가나 다 라, 하나 둘 셋. 제 자녀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포스터와 낱말카드를 붙이고 책을 많이 읽어 주었으며, 그 외에도 가르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늘 집안 벽면을 교육에 활용해 왔기 때문에 벽면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녀들의 놀이 공간인 벽면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교회에서 승인한 시각 자료 등 복음 그림을 전시하기에 안성맞춤인 듯했습니다. 저는 그림에 색지를 덧댄 후 벽에 붙였습니다. 각 그림 밑에는 자녀의 연령에 맞게 줄거리를 간단히 적어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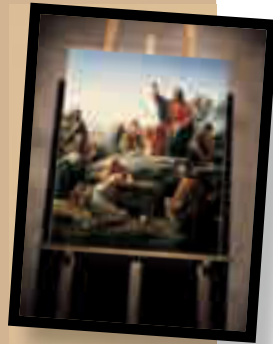
아이들은 이것을 “경전 벽”이라고 부릅니다. 경전 벽은 어느새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경에 나오는 열네 가지 핵심 이야기를 골라 연대순으로 전시했습니다. 자녀들은 질문을 던지며 주요 사건과 개념들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친구에게 그림 하나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서 우리의 경전 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배우도록 힘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들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캐서린 패리쉬 스미스, 미국 유타 주

이 제언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 잡지에 실린 그림을 떼어내거나 www.gospelartlds.org에 나오는 그림을 인쇄할 수 있다. 새로

나온 복음 그림책(물품번호 06048 090)을 주문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이 책에는 137가지 그림이 들어 있다. 이 책과 기타 복음 그림은 후기 성도 교회 배우 센터나 웹사이트 www.ldscatalog.com에서 구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Distribution Services[배부 서비스] 전화, 1-800-537-5971로 연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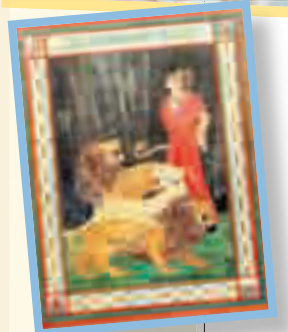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그런 다음 어머니는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단계를 가족들에게 실행합니다.

교리를 확인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을 하면 그분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가족들이 질문에 대해 토론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은 다음 읽은 내용이 참된지 알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로 신앙에 찬 기도를 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진리를 증거하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리를 이해한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셉은 성경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여쭙 볼 수]”(야고보서 1:5) 있다는 내용을 읽고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셉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조셉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다음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기도하는 모든



매일 어린 자녀들과 경전에 관한 생각을 나눠 보세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저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저는 제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복음 진리와 일하는 능력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각과 간증을 나눕니다. 매주 일요일에 30분 정도 준비하면 한 주 동안 사용할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복음 그림, 초등학교 노래, 구약전서 이야기, 교회 잡지에 나오는 제언들이 특히 유용합니다.

- **복음 그림책.** 그림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gospelart.lds.org에서 복음 그림책 사본을 인쇄하여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그림을 건네줄 수 있고, 자녀들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것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노래.** 때때로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초등학교 노래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울동을 하며 부르는 노래를 배웁니다.
- **구약전서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 한 쪽만 읽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읽기 전에 시각 보조 자료나 실물 공과로 앞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보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물에 빨간색 식용색소를 탄 후 아이들에게 경전에서 주님께서 물을 붉게 만드신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 **교회 잡지.** 때때로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교훈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은 어린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음식을 갖다 드리는 그림을 인쇄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들께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그림에 나오는 숨은 그림 찾기를 했고 첫돌이 된 아이는 그림에 대고 아무렇게나 적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나누는 데는 고작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이따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잡지를 움켜잡고 우리가 배웠던 몇 가지 이야기와 복음 원리들을 들려주어 놀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란 후에도 우리는 아침 식사 시간에 영적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바쁜 날에도 종종 자녀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짧게 영적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이 영을 가까이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에서 훌륭한 자료를 무수히 제공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매주 영적인 생각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개인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알레한드라 애덤스, 미국 버지니아 주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방법으로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교리를 적용한다. 한 자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모로나이서 10장 4절에는 공부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참된지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이제 가족들은 모로나이가 한 약속을 어떻게 시험해 볼지 결정합니다.

증거를 간구한다. 어머니는 간증을 나누며 이 구절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들려줍니다. 모로나이가 한 말, 즉 복음 원리가 참된지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 원리를 공부한다면 영이 증거하여 그것이 참되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공과를 마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고 경전에서 배우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 힘과 인도가 될 훌륭한 원천을 자녀의 마음과 손에 쥐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니파이 22장 13절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네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니라.”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84쪽.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생활은 지금부터
단합할 때 시작된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디아나 바스퀘스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9일, 오빠와 남동생과 디아나가 등교할 때만 해도 아버지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디아나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잠시 쉬려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이었어요.” 디아나는 당시에 열여섯 살이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계획되었음을 아는 사람들도 이따금 가족을 당연하게 여긴다. 물론 형제자매들이 귀찮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늘 의견이 같은 것도 아니며, 때로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울 수도 있다.

그러나 디아나 가족에게 일어났듯이 예고 없이 비극이 찾아오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이를테면 가족이 그 하나다.

다행스럽게도 디아나의 가족은 이미 현세와 내세에서 단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힘든 시간을 맞아 가족간에 화합이 깨질 뻔했을 때에도 협력했다. 그렇게 이 가족은 이생에서 화평과 행복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었다.

단합이란 무엇인가?

디아나 가족은 쿠스코에 산다. 쿠스코는 페루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로, 고대 잉카제국 중심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디아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디아나 바스퀘스는 페루에서 5백 년 된 잉카제국 요새, 사크사이우아만 성벽을 보며 단합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웠다.

가족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풍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를 발견했다. 잉카제국 요새인 유적지, 사크사이우아만(Sacsayhuamán)이었다. 잉카제국에서 건립한 성벽은 매우 견고하여 5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지진에도 끄떡없이 잘 견뎌 왔다.

디아나에게 가족은 그런 성벽 같았다. 어려움이 닥치면 충격은 받았지만 와해되지는 않았다.

사크사이우아만 성벽을 쌓은 돌은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길쭉하고, 짧막하고, 네모지고, 어떤 것은 그저 평범한 큼직한 돌이다. 그러나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성벽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크기가 다른 돌이 제대로 놓이면 힘을 합쳐 구조물을 지탱한다. 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단합을 키우십시오

“단합이라는 은사는 율법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식들을 받을 때 …… 주어[집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따르겠다는 성약을 지킬 때,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며 우리를 단합시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8쪽.

된다.

우리의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우린 모두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디아나는 말한다. “그 은사와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해요.”(고린도전서 12장 참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디아나와 어머니와 두 형제는 각자 지닌 재능과 능력에

맞게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일했다. 바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가족은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함께 맺[었다.](모사이야서 18:21)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맺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에서 그와 같은 연합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¹

어떻게 단합하는가?

그토록 훌륭한 석조 건축물을 세우면서 잉카인들은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았다. 돌은 매우 정교하게 끼워 맞췄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다. 이 놀라운 접합 기술이 가능한 이유는 성벽 기술자들이 각 돌을 놓을 자리를 알았고, 전체 설계도에 꼭 맞게 쌓으려면 각 돌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빛도록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그분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²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복음 의식과 성약에 순종할 때 이런 단합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한다.³

복음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는 것은 디아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디아나와 남동생 엠마누엘은 첫 번째로 교회에 가입했다. 그 전에는 가족이 많이 다투었다고 디아나는 말한다. 부모님은 디아나와 두 형제들에게 가장 훌륭한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도 엄격하셨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디아나가 한 말이다.

디아나가 침례를 받고 몇 달이 지난 후, 아버지와 오빠 리처드도 교회에 들어왔다. 일 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니도 침례를 받았다.

“아버지는 변화하셨어요.” 디아나는 아버지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께서는 그 일에 대해 대화를 하셨어요. 다투는 일이 줄어들고 가족은 더욱 화합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똑같은 목표가 생겼다. 어머니가 침례를 받고 일 년이 지난 후, 이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디아나가 말한다. “인봉실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 계시는 부모님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설명할 수조차 없었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른쪽: 디아나, 어머니 두발리에, 오빠 리처드와 남동생 엠마누엘 (위쪽)은 서로 계명을 지키도록 도우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 후 디아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디아나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에 가정의 밤 공과에서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성약을 지키는 일에서 단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단다.”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죽더라도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지.”

성약을 지킬 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디아나는 함께 노력하여 복음 성약을 지킬 때 가족이 함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 학교에 가는 디아나에게 아버지가 건넨 마지막 말은 바로 “Te quiero mucho, Dianita.”(귀여운 디아나,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였다.

디아나는 계속 성약을 지킨다면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를 따르도록 어떻게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 주셨는지 보았어요.” 디아나는 말한다.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신성한 계획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영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끝까지 견디고, 마음을 하나님의 것에 두고, 서로 돕기만 한다면 영원한 가족이 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요.”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9월호, 2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66쪽 참조.
3.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6쪽 참조.

단합을 이룰 수 있는 모형

주 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다면 단합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단합은 계명이다.

페루 쿠스코 인티라이미 스테이크 소속인 디아나 바스퀘스는 같은 스테이크 내 다른 와드 친구인 즈호나단 헤레라 바라와 함께 친구, 가족, 급우, 정원회 회원 등 모든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단합을 형성하는 데 모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토론했다.

동일한 수평선에서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본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부족한 단합을 상징한다.

단합하려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단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많은 요소가 방해할 수 있다. 어쩌면 두 사람 다 자신이 옳다고 여길지 모른다. 자만심이나 분노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종종 오해로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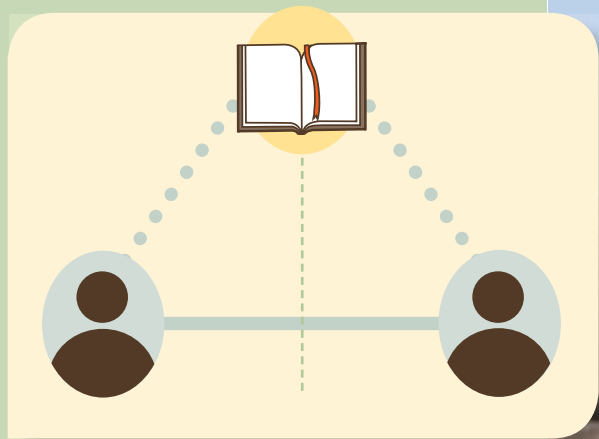
이 수평선에서 함께 움직이려면 종종 화해도 필요한데, 이것은 다른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도 한다. 가운데 지점이 어디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 두 사람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서 삼각형을 이룬다고 상상해 보자. 이 사람은 구주를 의미한다.

우리가 구주께 더욱 가까이 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거리도 좁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운데 지점이에요.” 디아나는 말한다. “우리 모두가 그분께서 계신 곳으로 옮겨 간다면 우리 모두는 더 가까워지죠.”

즈호나단은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여 성약을 새롭게 하고, 봉사하고, 성전에 가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할 수 없고, 영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리하이의 꿈에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리하이의 꿈에는 후기 성도가 인생에서 겪는 시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연령인 교회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교회
기록부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1,974,001명”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그 중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되겠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남학생들은 대부분 갓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요즘 대학생보다 조금은 더 성숙했습니다.
전쟁을 겪어서 추억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계속 간직했지만 잊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진중한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재미난 놀
거리만 찾지는 않았습니다. 삶을 영위하고 싶었던
우리는 교육이 그 열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온통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애국주의라는
숭고한 미덕으로 고취되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괴되지 않으면서 파괴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인생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전쟁이 한창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는 전쟁 자체가 인류 제반사를 지배합니다.
전쟁터인 여러분의 세상은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노골적이고 부적절할지라도 영화나
연극이나 음악이나 대화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
같습니다.(베드로후서 2장 참조)

격식, 품위, 숭고, 권위에 대한 존중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단정하고 말쑥한
복장과 차림새보다는 단정치 못하고 너저분한
차림이 성행합니다. 이제 정직과 성실과
기본 도덕성은 경시됩니다. 대화에는 신성을
더럽히는 말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예술, 문학,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에서 그런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고상함을 잃고 오히려
음란해졌습니다.(디모데전서 4:1~3; 디모데후서
3:1~9 참조)

여러분은 그러한 경향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의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이 많습니다.

식막대를 붙잡으십시오

니파이전서 8장에서 리하이의 꿈을 읽어
보십시오. 리하이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하이의 꿈 크레그 올슨 박사 묘사. 사진 출처: 존 토크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한 시현을 본
것이니라.”(니파이전서 8:2)

리하이의 꿈이나 시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에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속에
나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경전[이] 우리에게
비유[되나니]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됨이니라.](니파이전서
19:23)

쇠막대가 나오는 리하이의 꿈
또는 시현에는 후기 성도가 인생의
시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리하이가 본 것

- 크고 넓은 건물(니파이전서
11:35~36; 12:18 참조)
- 강을 따라 난 길(니파이전서
8:20~22 참조)
- 어둠의 안개(니파이전서 12:17
참조)

이 막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쇠막대를
움켜쥐고 놓지
마십시오.



- 어둠의 안개 속을 인도하는
쇠막대(니파이전서 11:24~25
참조)
-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생명의
나무(니파이전서 8:10; 또한
니파이전서 11:8~9, 21~24 참조)

이 꿈 또는 시현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읽으십시오.

이 막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을
때 받은 성신의 은사를 누릴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니파이처럼 천사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으며, 평생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몬경은 저의 쇠막대가
되었습니다.

리하이는 그 나무를 향해 “밀고
나아오[는]”(니파이전서 8:21)

무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크고 넓은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니파이전서 8:27)를
보였습니다.

이 꿈 또는 시현에 나오는 한
단어는 젊은 후기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후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발견한 후 부끄러워했으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에 그들이 열매를 맞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

또 저 이상한 건물로 들어간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이 그
건물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떨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8:28, 33)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리하이의 아들인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 ……

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 고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며, 장차 올 시대에서와 같이 고대에도 역시 그러하였음이라. 그러한즉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니파이전서 10:17, 19)

리하이의 아들인 니파이는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모든 상징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와 확인을 받으면서 쇠막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여러분이 그 과일을 취한 후에 옵니다.

이따금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고 교회에 충실했으며 재능과 능력이 출중했던 한 급우가 생각납니다. 그는 결혼도 잘했고 곧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점점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에게 세상의 방법, 즉 그들의 방법을 따르도록 유혹했습니다.

때때로 그런 타협은 빗질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세워 부풀리는 짧은 여성이나,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멋들어져 보이려는 짧은 남성처럼, 어떤 차림새를 하는가, 또는 어떤 옷을 입는가와 같이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제 급우는 어디선가 작은 일에서 쇠막대를 조금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한 손으로 쇠막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서 빠져나가 쇠막대를 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리하이의 꿈 또는 시현에서 예견된 것처럼 그는 금지된 길로 빠져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넓은 건물을 바라보기보다 그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로 텔레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사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그 크고 넓은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지어냈습니까? 그가 몰몬경을 썼습니까? 그것은 천사와 금판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믿기 어렵습니다. 몰몬경이 출판되었을 때 조셉 스미스는 겨우 스물네 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후기 성도처럼 보이고 후기 성도다운 차림새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즉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십일조를 내고, 성찬을 취하고, 신권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지도자를 따르고, 경전을 읽고, 몰몬경을 공부하고, 항상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이 쇠막대를 잡은 여러분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그것은 필멸의 삶의 목적에 위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수립할 단단한 기초가 형성될 것입니다.(히라맨서 5:12 참조)

이따금 어둠의 안개가 짙게 깔려 바로 코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을 분명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인생 내내 나아갈 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쇠막대를 움켜쥐고 놓지 마십시오.(제3니파이 18:25; 교리와 성약 9:8 참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시대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영적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개다이엔톤이 시작한 비밀 결사가 “모든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즉, 너희 이방인들아, [여기서 이방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보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이는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이러한 살인 결사들이 너희를 이김을 용납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요 ……

그러한즉,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생김을 보거든, 너희 가운데 있을 이 비밀 결사로 인하여 너희는 깨어나 너희의 참담한 처지를 깨달을지니라.”(이더서 8:20, 23~24)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은 종교적으로 불신앙을 표방하며 오늘날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전례 없는 방법으로 단결합니다. 그들은 이제 조직화되어 정치 권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신앙인들과 종교를 조롱하며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시렘, 니허, 코리호어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야곱서 7:1~21; 엘마서 1:1~15; 30:6~60 참조)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의 논증은 물론경에 나오는 이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용기와 신앙을 시험하려는 것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모든 조롱이 교회 밖에서만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롱이 교회 밖에서만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롱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고리와 성약 38:3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로나이도 이와 같은 도전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을 비웃을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5~2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꿈 또는 시현에는 “극히 값진 진주”(마태복음 13:46)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하이와 니파이가 본 것

- 팔에 어린아이를 안은 처녀(니파이전서 11:15~20 참조)
- 길을 예비할 자—침례 요한(니파이전서 11:27 참조)
- 하나님의 아들이 베풀 성역(니파이전서 11:28 참조)
- 메시아를 따르는 다른 열두 명(니파이전서 11:29 참조)
- 하늘들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모습(니파이전서 11:30 참조)
- 축복과 병 고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니파이전서 11:31 참조)

-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니파이전서 11:32~33 참조)
- 하나님의 사업에 반대하는 세상의 지혜와 교만(니파이전서 11:34~36 참조; 또한 니파이전서 1:9~14 참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꿈 또는 시현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교회 젊은이] 이백만 명 중 한 사람인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니파이후서 25:26) 합니다.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그리고 나서 니파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만일 너희가 이를 깨달을 수 없다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때문일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기필코 멸망하리로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4~5)

성신의 속삭임

여러분은 흥미로운 세대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신이 여러분에게 방패와 보호막이 되고,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교리에 관해, 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표준에 관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충실하다면 여러분은 항상 세상과는 크게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는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결정에는 학업과 관련된 일, 배우자를



찾는 일, 직업을 찾는 일, 거주 문제, 제멋대로인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둘러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회나 성찬식 모임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은 경전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표준을 수호한다는 말도 합니다.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진정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들의 특징인 냉소적인 조롱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회원이 1,300만 명이 넘는, 계속 성장하는 교회를 감리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대다수는 미국 이외 지역에 있습니다. 대학에 갈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회원들도 많지만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을 보고, 또 그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한 힘을 느낍니다.

젊은 후기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물몬경을 생각할 때, 리하이가 본 꿈 또는 시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 있음을 느낍니다. 니파이전서 8장부터 시작하여 다시 읽어 보고 그 안에 담긴 권고를 계속 읽으십시오. 물몬경에는 죽음 이후에 있을 삶이 나옵니다. 영이 어떻게 되는지(앨마서 40:11~12 참조)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니파이후서 2:29; 9:10~13 참조)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읽어 보고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 교회에서 조롱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니파이전서 8:33 참조) 우리는 단지 부름 받은 일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매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리하이의 꿈이나 시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에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속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아침부터 제가 사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축복이 줄곧 함께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살면서 훌륭한 일과 소란스러운 일과 힘든 일을 많이 겪겠지만 큰 기쁨과 영감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훌륭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일어날 일과 이미 우리가 받은 예언에 대비해 특별한 영들을 아껴 두셨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의 교회와 왕국이 보호 받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구하며 이 복음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

이 기사는 2007년 1월 16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했으며, <http://speeches.byu.edu>에서 영어로 전문을 볼 수 있다.

“우 리 이번 주에 뭐 할까요?”
이 질문은 지도자들이 종종
듣는 말이다.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상호 향상 모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도우려 할 때에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 질문에 답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 본다. “이번 주에 하려는
활동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최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권고했다. “청소년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돕는
책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몬슨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다.
“청소년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거리를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몬슨 회장은 늘
강조해 온 말을 되풀이하며, 주님께서

그분이 부르시는 자에게 영감을
주신다고 말씀했다!

리아호나 잡지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준
상호 향상 모임이나 기타 청소년 활동을
떠올려 보고, 그 결과 무엇을 성취했는지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현 지도자들은
이들의 경험을 읽으면서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중요한 추억거리와 영원한
간증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을 것이다.

지도자와 청소년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영원히 남을
추억거리를 만들고
간증을 쌓게 할 수 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





특별한 일에 속하는 기쁨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967년 늦은 봄,
저희 와드는 전국 단위
교회 춤 축제에서
춤을 출 청소년 열여섯
명을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이다호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아이들인 우리에게 춤 축제에 가는 일은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그 축제는
수천 관중이 모이는 유타 대학교 대규모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춤에 소질이 없었으므로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에는 머무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춤 축제를 준비하는 훌륭한 청남
청녀들과 함께 어울리며 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라는 대도시에
가서 수영장이 딸린 호텔에 묵는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절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공연하는 날,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우리는

의상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볼룸댄스를 할 때
입어야 하는 검정색 바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바지를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쌀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떡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와드 청남 역원인 로우 형제님은
자신의 어두운 색 바지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바지를 입었는데 기장이
거의 딱 맞아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리 부분이
헐렁헐렁했습니다. '어떡함담?' 저는 로우
형제님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큰 바지를
입어야 해서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로우 형제님과 친구들은 바지가 정장
상의로 가려질 테니 아무도 몰라볼
거라면서 허리띠로 바지를 꼭 조이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받은 느낌과
전국 각지에서 온, 믿음과 신념이 같은
청남 청녀 수백 명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게는 그 때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차레가 되자 우리는 경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하자
걱정한 대로 크게 부풀어오른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수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아찔한
상황에서 저는 제 볼룸댄스 사전에
새로운 발동작을 추가해야만 했습니다.
그 동안 배운 모든 동작을 기억해야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동작까지 만들어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 발동작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제
파트너가 이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저는 더 곤혹스런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볼룸댄스를 추던 그 짧고 위태위태한 순간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단순한 춤 축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 즉 회복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동틀 녘에 얻은 간증

폴 비 파이프 장로
칠십인



저는 교회 회원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복음 원리를 배웠으며, 합당한 아버지께 침례와 확인, 신권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의 영향력을 느꼈지만, 십대 시절 어느 부활절 전까지는 속죄의 실재성에 대한 간증이 부족했습니다.

세미나리 학생 수백 명이 동이 트기 전에 모여 간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도 간증을 나눴으리라 생각하지만 뚜렷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부활절 아침을 알리는 태양이 떠오를 때 제 가슴에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 가르침, 속죄, 부활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선교사, 아버지, 친구,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간증에

대한 확신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닳이 되어 준 간증은 바로 그 부활절 아침에 영이 전해 준 증거입니다.

미래 선교사 준비

키스 케이 힐비그 장로
칠십인



위스콘신 밀워키 와드에서 지내던 시절,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호 향상 모임은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훌륭한 기회였고, 사춘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모임은 청소년 시절에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때는 1956년, 무려 54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상호 향상 모임에서 1.2미터 높이의 아름다운 솔트레이크 성전 세부 모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몰몬경의 목적과 이야기를 담은 대형 포스터도 제작했습니다.

와드 보이스카우트 대대는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연례 스카우트 재능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전시 공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방문자들이 우리 전시장을 지나가며 관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었고, 스카우트 단복을 입은 어린 아론 신권 청년들에게 성전을 전시한 목적을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설명한 다음, 종이 표지로 된 몰몬경을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스카우트 대원과 저는 (우리는 같은 교사 정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스무 살의 선교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합당하게 생활하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다짐을 이루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과 헌신적인 청소년 지도자들이 준 영향력이 일조했습니다.



저는 규모와 상관없이 활동 자체가 바로 교회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도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지도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대로 생활할 때, 복음은 활동이라는 환경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가르쳐지고 인지됩니다.

활동을 생각할 때에는 신앙개조 제13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청소년 시절을 떠올릴 때면 저는 작고 단순한 것들이 많이 쌓여서 결국 간증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앨마서

37:6~7 참조) 그 시절에 다녔던 와드는 대가족 같았습니다. 와드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면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바자회를 열거나 초등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는 날에도 모두가 왔습니다. 우리 와드는 곧 사교 생활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와드에서 열린 첫 번째 연극제를 돌이켜보면, 새벽에 연습하고 기도하던 일, 우리가 연기할 부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일, 무대 배경이, 그리고 연습하고 함께 배우면서 느낀 우정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시기는 복음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청녀 고문들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고, 지도자들이 부담스러운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배우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일요일에 배우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배역을 잘 기억하거나, 청소년 중 한 명이 건강해지도록 기적을 내려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영을 느꼈습니다.

연극제에서 제가 맡은 배역의 대사나 다른 모든 세세한 일까지는 기억나지

상호 항상 모임이란 무엇인가?

청남 청년들은 상호 항상 모임이라고 부르는 정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상호 항상 모임이란 용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된 경험을 연상시킨다. 상호 항상 모임 활동은 청소년들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영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으로 발전할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상호 항상 모임은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제외한 낮 또는 저녁에 열린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열리지만 신권 지도자들이 이동 거리, 자원, 또는 기타 여건상 매주 모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빈도를 줄일 수도 있다.

와드 또는 지부 청남 및 청녀 회장단은 감독단 또는 지부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상호 항상 모임을 감독한다.

더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LDS.org를 방문하여 "Serving in the Church"를 클릭한다.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연했을 때, 그리고 와드 회원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서 사랑을 느꼈을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초대에 응하여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남 회장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여해 본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대규모 춤 축제였습니다. 제가 그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리는 만무합니다. 처음에는 춤 축제에 참여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달콤한 말에 끌려서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지만 춤을 배우는 과정은 더뎠습니다. 헌신적인 교사와, 인내심 많은 춤 상대자와, 의상을 바느질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춤 축제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 대규모 행사에 참여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각 팀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안무에 맞춰 춤을 추며 관중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출 때는 미식축구 경기장이 그야말로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춤 축제는 매우 감명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춤 축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기술도 익혔으며, 수천 명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대규모 축제에 직접 작은 기여도 했습니다.

축제에서 춤추자는 초대를 받아들였고, 교회에서 하는 다른 초대에도 응했기 때문에, 제 삶은 축복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

1. Sarah Jane Weaver, "Building on a Firm Foundation for Young Women", Church News, 2009년 11월 28일, 3면.

아빠, 저도 침례 받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을 들어서는데 부엌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섯 살 난 딸 제시가 보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제시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물었다.

“아빠, 제가 악마의 자식이란 말이 진짜예요?” 제시가 몹시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찬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제시는 제시 친구의 삼 개월 된 여동생이 벌써 침례를 받았다고 했다. 제시는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동생이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았는지 물었고, 그 친구는 모든 아기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넌 침례 안 받았어?” 하고 친구가 물어서, 아직 안 받았다고 하자 그 아이는 제시가 악마의 자식이라고 우겼다는 것이다.

“아빠, 저도 침례 받고 싶어요!” 제시가 애원했다. “악마의 자식이 되기는 싫어요!”

나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침례가 왜 중요하고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 설명했다.(모로나이서 8:11~23 참조) 제시는 아직 여섯 살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제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제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제시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모로나이가 “모든 것의 참됨”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모로나이서 10장 4~5절을 읽어 주었다.

구절을 읽은 후, 나는 제시에게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참된지 여쭙 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겠냐고 물었다. 제시는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다. 제시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정말인지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제시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시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간구했다.

몇 분 후, 제시가 말했다.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나는 제시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혜사를 주셨단다. 그분은……” 내 손을 가슴으로 가져가는데 제시가 말을 이었다. “가슴속에 따뜻한 느낌으로 응답하시죠! 느껴져요, 아빠!”

나는 제시를 껏 안고 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나 역시도 마음속에 뜨거운 느낌이 전해져 왔다. 나는 딸에게 지금 이 느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 느낌으로 제시가 정말 하나님의 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제시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그 경험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호세 아르만도 곤잘레스 몬드라곤, 멕시코

난 생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딸아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간구했다.





“안녕?”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난
애설리아.”

이제 레니는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한다.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레니는 자존심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낼 때 받는 축복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 매일 레니를 볼 때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생각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

애설리 존슨 에반슨, 미국 유타 주

두려움을 사랑으로

나는 매일 하룻길 버스에서 그를 보았다. 항상 똑같이 험렁한 티셔츠에 낡은 테니스화를 신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그는 늘 혼자 앉았다.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특별한 승객이었다.

성신은 매일 그에게 인사하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늘 내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과 다른 누군가와 어울리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웠다. 무엇보다도 내 평판을 유지해야 했다.

영이 유독 강하게 임하고 더 큰 용기를 냈던 어느 겨울 오후, 버스에 올라 그를 발견했다.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너무 가깝지는 않게 옆에 앉았다. 내릴 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 그에게 몸을 돌렸다.

“안녕?”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난 애설리아.”

그가 나를 보고 씩웃 웃어 보이자 두려움과

자존심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난 레니야.” 그가 수줍게 대답했다.

그 몇 마디로 우리는 끈끈한 우정을 쌓기 시작했다.

이튿날에도 나는 레니 옆에 앉았고, 이번에는 더 수월했다. 우린 이미 친구였기 때문이다. 자리에 앉자 레니가 손수 만든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가방에서 꺼내어 내게 건넸다. 거기에는 “매일 버스에서 마주치는 예쁜 소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밸런타인데이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건만, 레니는 나를 위해 이 특별한 카드를 만들고 건네 줄 기회를 끈기 있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성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레니에게 말을 거는 두려움에 맞섰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오빠의 호른 소리

나는 오빠가 호른을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날마다, 해마다 오빠의 호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초등학교 하룻길에는 몇 구획 밖에서도 호른 소리가 들렸다.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우리 오빠만큼 호른을 잘 부는 사람은 없다고 우겼을 것이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호른 연주에 이따금 방해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오빠가 호른을 그만 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 오빠는 휴가 때에도 호른을 가지고 갔다!

세월이 흘러 오빠와 나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어느 큰 대학교 교정에서 열리는 음악경연대회에 참석했다. 그 대학교는 내가 처음으로 가 본 곳이었다. 그 대회에서 우리 고등학교 합창단이 1등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부르도록 앙코르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지시 받은 후 각자 불일을 보러 갔다. 이윽고 교정 한가운데 서서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길을 잃었을 때에는 “지금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해.” 하고 일러 주신 어머니 말씀을 기억했다.

나는 그곳에 가만히 있었지만 수줍어서 누군가에게 방향을 물어보지도 못했다. 게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모이라고 한 장소와 시간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나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후기 성도 친구들과 함께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녔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배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멈춰 서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아멘이란 말을 하기도 전에 귀가 쫑긋했다. 먼 곳에서 낮은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살아오면서 늘 들어 온 바로 그 소리였다. 소리를 따라 걸어가자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오빠의 호른 소리인가? 나는 그렇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때 다른 호른 소리도 들었다. 나는 멈춰 섰다. 저 모든 호른 소리 중에 오빠의 호른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의심이 들 때마다 마치 나에게 손짓이라도 하듯 오빠의 호른 소리가 들렸다. 한 건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자 소리는 더욱 가깝게 들렸다.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문을 열었을 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다. 3층에 올라 한 번 더 귀 기울여보고는 결단을

내렸다. 심호흡을 한 다음 문을 열었다. 오빠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홀로 버려졌다고 느낄 때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 자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익숙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되면 잘못 이끄는 여러 소리 가운데서도 그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당황하지 말아야 하며, 음성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

샌디 로더데일 케인, 미국 미주리 주

기사가 와 닿았다. “여러분이 유일한 교회 회원일 때 가장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동료 선수들은 내가 후기 성도라는 걸 알았다. 파티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감자튀김 그릇에 손을 넣는 나를 주시하는 듯했다.

“야, 너 몰몬이지? 맞지?” 누군가가 말했다.

나는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난 몰몬이야. 그래서 자랑스러워.”

파티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내

수 영 가방을 챙겨 문 쪽으로 가는데 한 남자 아이가 소리쳤다. “야, 너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냐?”

이곳을 떠나!

수 년 전, 나는 오하이오 주에서 고등학교 수영선수들을 대상으로 열린 전국 대회에 유타 주 대표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대회 일정에는 선수들을 위한 파티도 있었다. 첫날 파티에 갔을 때에는 루트비어(생강 등 여러 뿌리즙을 넣어 만든 탄산음료-유크인)를 마시고 게임을 하며 집에 가기 싫을 만큼 흥겨운 파티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이 느껴졌다.

문득, 교회 잡지에 실린 어느



동작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다. 잠시 후 파티는 점점 열광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얼마나 더 요란해질지는 몰랐지만 나는 그 속에 끼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내 표준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까 봐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영은 그곳을 떠나라고 속삭였다. 수영 가방을 챙겨 문 쪽으로 가는데 한 남자 아이가 소리쳤다. “야, 너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냐?”

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내일 보자.”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주님의 표준을 지켜서 내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튿날,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대표자 한 명이 일어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각 주를 대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세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 중 몇 사람은 파티장을 떠나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남은 대회 기간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존경과 환대를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온 많은 코치들이 내게 서부 지역 대표 선수로 뛰라며 독려했다. 내가 유타 주를 대표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그날 파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다만 영이 내게 떠나라고 속삭여 주어서 감사할 뿐이다.

■
손리사 올스 하셀바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장로님이 자랑스러워요

가나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 우리는 준비날에 손으로 옷을 빨았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동반자 모스 장로는 이런 식으로 빨래를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가나 태생인 나에게는 늘 해 오던 일이었다. 월요일마다 모스 장로는 옷을 비벼 빨았지만 절반쯤 하다 보면 손과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나기

일쑤였다. 그러면 내가 내 빨래와 더불어 모스 장로의 남은 빨래를 해야 했다.

어느 월요일, 빨래할 시간이 되어가자 모스 장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보였다. 그 전날에 내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자기 빨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빨래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모스 장로는 빨래를 시작했지만 그날도 역시 절반쯤 하고는 더는 하지 못했다.

나는 동반자의 빨래를 도울 수 없었기에 참아 보라고 격려하며, 쉬었다가 다시 해 보라고 했다. 모스 장로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나는 동반자에게 빨래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손과 손가락 마디가 옥신거려도 그는 빨래를 계속했다. 빨래를 끝내자 모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자랑스러워요. 아산테 장로님,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예, 장로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대답했다. 그 일을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근면, 인내, 충실함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분은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일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견뎌 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우리가 견딜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시며 언젠가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맞으실 때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실 것임을 안다. ■
리처드 도맹 아산테, 가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우리가 사람들, 특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철십인

제가 태어난 1942년으로부터 2년 전에, 어머니는 저희 형 게리를 낳으셨습니다. 형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형은 태어날 때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었습니다. 형의 사고능력은 예닐곱 살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60년 이상 형을 돌보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모님은 형이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일요일에 벅타이 매는 일을 도와 주셨습니다. 말과 카우보이를 좋아하는 형을 로део 경기장이나 서부 영화 상영관에 데려가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형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어린이들, 심지어 활동적인 후기 성도 가정의 자녀들도 형에게 불친절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형을 놀이에 끼워 주지 않고, 짓궂은 별명을 붙이고, 가혹하게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형은 늘 금세 용서해 주고 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했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어린 시절에 제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저의 이 특별한 형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저는 엘마가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될 것]”(엘마서 40:23)이라고 묘사한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상상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형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에게 했던 모든 친절한 행동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형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좀 더 사랑과 이해심으로 대하지 못한 시간들을 무척이나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심의 필요성

세상에는 게리 형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르다”고 여겨지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이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여 배양된 문화 속에서 싹틔니다. 모든 문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는 노력으로 형성되는 문화에는 특정한 기대와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관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성하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특정한 표준대로 생활하며 정해진 길을 걷고, 특정한 교육적 그리고 영적 목표를 성취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이 지향하는 결과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도록 권고 받는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교리에 근거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적을 표방하더라도 삶과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교회 회원, 결혼할 연령임에도 아직 독신인 사람, 잦은 우울증이나 식이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고집 센 자녀를 둔 부모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적으로 자신이 눈에 띈다고 느낄 수 있는 교회 회원에는 소수 인종, 동성에게 마음이 끌려서 힘들어 하는 사람, 선교 사업 적령기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청년 등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도가 필요한 방법을 저질러 회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선도 조치를 받게 되는 회원들 또한 때때로 교회라는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합당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이상에 미치지 못해 다르다고 여기는 회원들도 종종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인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사려 깊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러한 감정은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 워드 회원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언제 아기를 가질 예정이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 부부가 오랜 시간 자녀를 바라 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던진 말이라든가, 그 말로 생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해결책은 이상을 없애거나 낮추는 일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라고 권고하셨지, “좋은 하루 보내라”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몇 년 전, 구주께서 양 한 마리를 잃은 사람에게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통찰해



**이런 저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우리 삶은 어떤
면에서 이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마태복음 18:12)

신권 지도자로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 자신을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이런 저런 면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우리 삶은 어떤 면에서 이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자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또한 이상을 가르치실 때에도 이상이란 늘 한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주께서 인식하셨다는 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주께서는 영적인 은사, 즉 성신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 영적인 은사를 누리기 위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터무니없이 높은 표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구주께서는 그 영적인 은사가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교리와 성약 46:9)에게 유익을 주고자 내리시기도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가끔



이상에 못 미칠지라도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노력을 받아주십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모사이야서 18:9)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니파이네 구주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니파이후서 26:24) 구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가중시킬 일이나 말씀을 하지 않으시리란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환으로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을 자발적으로 경험하셔서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엘마서 7:12) 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즉 동정심이라는 특성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역이 담긴 기록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신 동정심과 친절에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며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989년에 현 초등학교 어린이 노래책이 편찬되었을 때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과 이해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너와 걷고”라는 단순한 노래는 우리가 사랑과 이해심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보면은
장애자라 피하지만
난 아냐! 아냐!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말 못한다 놀리지만
난 아냐! 아냐!

너와 걷고 대화하리
그건 내 사랑의 표시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으로 대하셨네
나 주 따르리

예수님은 축복하며
날 따르라 하셨네
나 주 따르리
주 따르리

너와 걷고 대화하리
그건 내 사랑의 표시¹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우리가 사람들, 특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2008년 9월 7일, 유타 주 유타 카운티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 방송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너와 걷고”, 어린이 노래책, 78쪽.

가족이 되어

레이첼 날

청년 독신 성인들을 접하면서 나는 우리가 결혼 여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변에 무심해지는 경우가 쉽게 생기기도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청년 성인 와드가 아닌 가족 와드에 처음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독신이라서 더 많은 관심과 동정심, 보살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내게 좋게 작용한 경우는 아직 없다.

가족 와드에서 첫 해를 보내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근거 없는, 잘못된 생각일 뿐임을 깨닫고 놀랐다. 기혼자도 독신과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독신인 나도 다른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어떤 어머니들은 남편이 직장이나 교회 부름으로 집을 비울 때 놀러 올 친구가 생겼으며 기뻐한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성인에게 고마워하며, 대부분 영화관람이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기꺼이 자녀들을 “빌려 준다.”

또한 독신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와드 회원 중에는 장성한

자녀들을 떠나 보내 외롭거나,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삶의 문제를 헤쳐 나가느라 벅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혼자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실직, 또는 장애아나 버릇없는 자녀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늘 고마워한다.

이러한 깨달음과 우정을 한 순간에 얻은 것은 아니다. 꼬박꼬박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부름에서 봉사하며 도울 기회를 찾으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여섯 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몇몇 부모들은 고마워하며 자녀들이 내 공과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해 주었다. 지금도 와드에서 가장 친한 친구 중 몇 명은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다.

언제든지 와드 회원들을 돕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경우도 있다. 한번은 이사를 하기

와드 회원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전에 방에 페인트 칠을 해야 했는데, 마침 기말고사 기간인데다 결혼식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가야 했다. 이런 사정을 한 와드 자매님께 털어놓았더니 다른 자매님들과 함께 칠을 해 놓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들의 봉사 덕분에 나는 돈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회원들이 결혼으로 나를 규정짓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그것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를 할 때 나는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직업과 학업, 취미, 가족 이야기를 한다.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게 부족한 면보다 채워진 면이 많다고 보는 편이다.

한 현명한 친구는 우정이 쌍방향이라서 받지 않고 주기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가 쌓는 우정을 다 합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에는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환영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표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조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만, 불행히도 어떤 이들은 그러한 지식을 무시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려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과 간증을 나누고 복음 표준대로 생활했을 때 받은 축복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조롱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과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분노나 불친절한 마음으로 대응하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구주께서 주신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제3니파이 12:44 참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디모데전서 4:12)

끝으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로마서 1:16 참조)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이는 굳건한 모범으로 복음이 참되다는 강한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사랑으로 담대하게 수호하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설명해 주세요



얼마 전에 주로 매주 토요일에 경기하는 농구팀에서 편적이 있는데, 일요일에는 경기가 있어도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이 일 때문에 저를 놀렸습니다. 왜 일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느냐고 묻는 동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야.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고 운동 경기를 하지 말라고 배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복음 원리에 순종해.” 그렇게 말한 이후로 동료들은 제 믿음을 존중해 주었고 더는 놀리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비, 19세,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서 얻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타오봉 오, 20세, 나이지리아 리버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라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 간증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해 주세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라 에이, 12세, 독일 헤세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 말씀하시며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 대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기사를

읽었습니다.¹ 우리가 사랑을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혹한 태도를 거둘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존경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표준에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분하게 거절한 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고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표준에 맞는 다른 활동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루카스 에이치, 15세, 미국 애리조나 주

좋은 친구가 돼 주세요

저라면 우선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을 때, 그분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어떠한 결점이나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점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친절과 봉사를 통해 제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복음 원리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보여 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우구스테 알, 15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가 왜, 누구를 위해 표준대로 생활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다투려는 마음 없이 온유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표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견뎌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그것은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5:16 참조)

라라 엠, 21세, 브라질 파라이라

간증을 나누십시오



대학 시절,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저를 핍박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논쟁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간증을 나누자 그는 저를 박해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굳건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제심을 잃지 않고 대처하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성령이 늘 함께하여 우리를 강화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브레즈카 이, 21세, 칠레 발파라이소

교회 친구들과 이야기하세요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문은 내가 누구인지와, 나의

약점과 강점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주기에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는 절친한 후기 성도 친구가 단 두 명 밖에 없었습니다만, 저희는 함께 시련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친절하게 행동하고 범사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친절하게 행동하고 화를 자제한다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엠, 17세, 미국 네바다 주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2쪽; "That Is Christian Courage", New Era, 2009년 7월호, 2쪽 참조.



똑같이 돌려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에서 겪는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 받고 비난 받을 때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먹을 치켜들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때, 즉 다른 뺨도 마저 대 주고 화를 참을 때, 구주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악마를 무찌를 유일한 힘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으로 응수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인 구주의 사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2쪽.

다음 질문

“친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0년 9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9/10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좋은 아침

“기운을 내면 우리의 모든 일몰을
밝은 일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운을 내어”,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72쪽.



교리와 성약 1편 38절

우리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 주가 말한 것은

경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신명기 8:3; 마태복음 4:4; 교리와 성약 98:11 참조)
-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잠언 29:18)
- 주님은 자신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아모스 3:7 참조)
-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니파이후서 28:30; 교리와 성약 98:12 참조)

에 있는 것들과 '학술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라.

38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니, 여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39 보라, 또 바라보라, 무릇 주는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지자가 말한 예언과 축복이 항상 그 당시에 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또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성취된 예언과 축복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일지에 적는다.

- 하나님의 종이 성신으로 감동되어 전하는 말씀은 모두 주님의 음성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68:4 참조)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생활에 임하게 되는 축복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 교회 회장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권고를 들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고대의 니파이가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니파이전서 3:7) 하고 말했듯이 선지자의 권고에 따를 때, 안전과 평안,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블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0쪽.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니

“비평가들이 조롱하고 적들이 비웃을 때, 냉소자들이 이 사업을 얕잡아 볼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멋진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일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약속이 지켜지고,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The Order and Will of God”, Tambuli, 1989년 8월호, 3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가는 길목으로 그를 보내 주셨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조니 랄슨 마샬

어느 화창하고 따스한 일요일, 다만 타이베이 스퀘어에서 동반자인 버하겐 자매와 자전거를 타고 회원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다. 어느 때처럼 통행량이 많은 데다 교통체증이 심했고, 도로에는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가 즐비했다.

나는 평소처럼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갓길 쪽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동차와 부딪쳤고, 나는 땅바닥으로 튕겨 나가 버렸다. 위를 올려다 보니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길 한편에 세워 둔 차 안에 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내가 그 문을 들어받았는데 나도 그 사람도 미처 서로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오른쪽 다리에 충격을 입은 부위가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자국이 난데다 붓고 멍들어 있었다. 뒤쪽에 있던 앰블런스가 멈춰 서더니 내 상태를 살피고는 곧바로 나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는 다리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사고 차량 주인도 내가 괜찮은지 보려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엑스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버하겐 자매와 나는 차량 주인인 수 청 웨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계속 괜찮냐고 물으며 아까 일을 사과했다. 나도 청 웨이에게 사과하며 다친 곳이 다리뿐이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 웨이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다면 장로님들과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겠다고 했다.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청 웨이가 장로들과 만날 시간을 잡아 주었다.

엑스레이에서는 다행히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다고 판명되었다. 통증이 심하고 보기 흉할 뿐이었다.

그 주 주말에 나는 크리들 장로에게서 청 웨이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토론은 순조로웠다고 했다. 2주 후, 나는

청 웨이가 두 차례 교회에 참석했으며 침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기쁘고 신나는 소식이었다.

2002년 4월 27일, 청 웨이는 티엔 무와드에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다. 나는 이동을 가서 침례식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침례식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나중에 나는 청 웨이와 침례 접견을 한 패커 장로를 만났다. 패커 장로는 청 웨이에게 토론을 듣고 침례를 결심한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던 일을 들려 주었다. 청 웨이는 버하겐 자매와 내 태도에 감명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사고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상냥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됨을 확신했고, 그 후에 토론을 들으면서 영을 느끼고 간증이 쌓였다는 것이다.

나는 청 웨이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가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 기쁘다.

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내가 틀어박고
말았다. 나도 그
사람도 미처 서로를
보지 못했다.



가는 길목으로 청 웨이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란 점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안다.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안다. ■

세미나리냐, 운동이냐?

나는 균형 감각을 잃고 말았다. 교회와 학업과 운동을 더는 병행할 수 없었다.

캐롤라이나 테노리오 피카도

고등학교(4년제)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운동부에 들어갔다.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했다. 아홉 살 때 달리기를 시작했고, 아주 열심히 했다.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저녁 훈련에 나갔다. 코스타리카 전국 대회에 시 대표로 출전한 적도 있다.

종종 연습은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에는 새벽 다섯 시에 시작하는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온 지 2년 정도가 지나 열여섯 살일 때, 나는 내가 세미나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미나리에 참석하긴 하지만 전혀 잘 알아 있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주의 깊게 듣지도 못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녹초가 되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 팀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늘 열기왕성하게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교회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왔지만, 이제는 균형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뭔가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달리기는 유익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내가 잘 하는 분야이다. 재능을 사용하고 단련도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약하면 명성도 얻는다. 우리 팀에는 좋은 친구들도 있다. 내가 만일 팀을 떠난다면 친구들이 그리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미나리를 졸업하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팀에 계속 남는다면 세미나리 졸업은 못할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고등학교는 물론 내 인생 전반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장기 목표를 생각하면서 세미나리에 임하는 태도가 남은 생애에, 아니 영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무렵, 나는 코치와 팀원들에게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새벽 5시에 교회에 가기



일러스트: 스킵 크리에이티브



위해" 살아온 세월의 거의 반을 바쳐 온 육상을 단념하겠다는 내 결심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세미나리 참석이 나의 책임이자 우선순위이며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내 결정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친구들은 대부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래서 다음 2년 동안은 경전을 읽고 상고할 시간이 많아졌다. 늘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더 자주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균형과 평안, 행복을 누렸다.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세미나리를 졸업할 수 있었다. 세미나리 졸업 증서가 나에게서 큰 의미가 있었다. 나는 경전과 경전 속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힘을 길렀다. 매일 새벽 시간을 함께 보내며 훌륭한 우정을 쌓는 축복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미나리를 하면서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이런 생활방식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 삶에 축복이 되고 있다. 학과 공부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어렵다. 교회에서 맡은 책임도 늘어났다. 그러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을 키웠기 때문에 계속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평생 이 생활방식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싶다. ■



우선순위 정하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다 써 버려서, 더 좋거나 가장 좋은 일에 쓸 시간이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5쪽.

한 사람을 위해, 모두를 위해

더불어 설 줄 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필요한 순간에는
홀로 서는 법도 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독 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끝날 무렵, 샤를로트 바우만은 다른 십대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었다.

“생물 시간에 저희 반에서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어요. 저는 알코올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며, 사람들은 그저 재미를 위해 술을 마신다는 점을 지적했죠. 반 친구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하고 되물었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물문과 의견을 같이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도 물문이야.’ 처음에 그 아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었어요.”

질문은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도 이어졌다. 마침 샤를로트에게 묘안이 떠올랐다. “불현듯 제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요약본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돌려서 읽어 보게 했고, 몇몇은 제 말을 이해하는 듯했어요. 그 중에는 이 일로 영향을 받을 아이도 있겠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나 활동들을 늘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 곳에서는 샤를로트가 겪은 일과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때에는 대부분 홀로 서야 하기에 그런 기회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영적으로 강화한다.

함께 서기

모든 사람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근처에서 열린 청소년 대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성전에 참여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고양된 것을 대회의 백미로 꼽았다.

벤자민 올리히는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매우 험난한 시기에 함께 싸우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사방에서 공격이 퍼부어지고, 사탄은 곳곳에서 손아귀를 뻗어 오죠. 하지만 청소년들은 서로를 떠받쳐 줘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샤를로트: “불현듯 제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아이들에게 그걸 돌려서 읽어 보게 했죠.”





벤자민 올리하: “우리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척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다: “친구를 사귄 때 모범이 되는 진정한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성전에 가면 그곳에서 영적인 경험을 함께하게 되지요.”

성전이에요.”

홀로 서기

이곳 청소년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받아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은 매일 학교에서, 또는 다른 경우에, 간증에 시험을 받기도 한다. 교회 표준을 수호하기 위해 서는 것은 이들에게 흔한 일이다.

요나탄 핀게르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 학년에선 제가 유일한 교회 회원이에요. 이제 저는 어딜 가든 ‘몰문’으로 불려요. 도덕 시간에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급우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었거든요. 좋은 점은 그 후,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죠.”

때로는 교회 표준을 지키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빈센트 뉴숨은 종종 순결의 법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서야 한다. “학교 친구들은 순결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았죠. 어떤 어머니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척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다 올리하는 교회 친구들을 생각할 때 성전을 함께 떠올린다. 성전에서 멀지 않은 와드에 다니는 덕분에 이다와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다. “친구를 사귄 때 모범이 되는 진정한 친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성전에 가면 그곳에서 영적인 경험을 함께 하게 되지요.”

마이클 피들러는 이렇게 말한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일이 정말 좋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모든 활동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회에서 영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은 단연



마이클: “모든 활동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회에서 영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은 단연 성전이에요.”



요나탄: “저희 학년에선 제가 유일한 교회 회원이에요. 이제 저는 어딜 가든 ‘몰몬’으로 불려요. 도덕 시간에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급우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간증을 나누었거든요.”



딸이 열네 살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피임약을 타 와요.”

그러나 빈센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 “순결의 법을 지키면 더욱 강해져요. 물러설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러서서 세상 사람들이 으레 하듯이 행동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버릴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교회 표준을 수호하다 보면 사람들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카리나 솔트는 입학했을 때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다. “친구들은 제게 종교와 표준이



빈센트: “학교 친구들은 순결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았죠.”

있고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4년이 지나자 다행히도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 표준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어요.”

힘을 얻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벤자민 롬바흐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니파이전서 3장 7절에서 힘을 얻는다. “이 구절에서는 니파이가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발휘한 투지와 용기를 엿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은 계명에 순종하고 유혹을 더 잘 이겨내기 위해 힘이 필요할 때 도움이 돼요. 제가 간절히 원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샤를로트 바우만은 휴대용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카드에서 힘을 얻었다. “가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나와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도 제 원칙을 한결같이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이다 올리히는 청소년 대회와 성전에서 느끼는 힘이 자신을 고양시킨다고 말한다. “저는 성신을 자주 느껴요. 지금 이 청소년 대회에도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성전에서든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면 기쁠 거예요.”

카리나 솔트는 굳건한 태도와 기도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프리드리히스도프에서 바라본 전망





카리나: “저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강건함을 유지했다. “저는 많은 유혹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굳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야 해요. 교리와 성약 88편 126절에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곤경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함께 설 때든 홀로 설 때든,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다. 이 힘은 그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데 훌륭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빛을 보았다. 존 벤노튼

선교 사업 준비

프랑크푸르트 청년들은 미래에 선교사로 봉사할 날을 그려 보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한다. 파스켈 피켓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공부를 마치면 선교 사업을 나갈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봉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설, 그때를 준비해야 해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기도와 신앙이에요.”



파스켈

벤자민 롬바흐도 다방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반 친구들은 의문이 생기면 교회 회원인 저를 찾으면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항상 그 자리에서 간증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차례 선교사들과 길거리에서 선교 전시회를 하기도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벤자민은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한 간증을 얻고 그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키워 주변에 발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벤자민은 행복해. 나도 벤자민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그에게는 뭔가가 있어.’”



벤자민 롬바흐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자민은 선교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경험을 했다. 벤자민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교회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설명하려는데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5~24절에 있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부분을 읽어 드리는데 눈물이 났고,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죠. 그분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고, 꼭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했어요. 어쨌든 이 경험 덕분에 제 간증, 특히 회복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었어요.”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5~2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을 읽은 벤자민은 다른 사람에게 회복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사라 커틀러
및 라이언 존슨
실화에 근거

우리 모두는 신발이에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심이니라.”
(니파이후서 31:3)

라이언이 새로 이사간 동네에는
호주, 캐나다, 이집트, 영국,
인도, 쿠웨이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코틀랜드, 미국,
베트남 등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라이언은 다양한 곳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흥분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공원에 놀러 나온 아이들이 같은
말을 쓰는 아이들하고만 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이언은 왜 아이들이 다
같이 놀고 싶어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떤
말을 쓰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에게 짓궂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이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작정 친구가
되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 달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라이언은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짓궂게 굴던 사내 아이들
몇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축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이언도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라이언은 용기를 내어 그 아이들에게 걸어왔습니다. 라이언도 그 아이들도, 서로의 말을 조금밖에 몰랐습니다. 다같이 상대방의 언어로 터듬거리자 모두들 빙긋이 웃다가 깔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공을 가리켰습니다. “축구 같이 할래?” 라이언은 아이들이 알아듣기를 바라며 천천히 말하고, 평소보다 더 활짝 웃었습니다.

소년들은 라이언을 쳐다보다가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무슨 말을 나눴지만 라이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라이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언은 활짝 웃었고, 함께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라이언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도

주뻗거리며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바닥에 놓자,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라이언은 잠시 숨을 돌리려고 물을 마시러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엄마, 우리는 다 신발이에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신발?”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데 신발은 다 신고 있잖아요. 사실 신발만 신고 있으면 축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좋은 발견이구나.”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 닮은 점이 많지.”

라이언은 새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다시 문 밖으로 달려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아이들은 매주



“우 리는 우정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더욱 친절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
“제일 좋은 길”, 리아호나, 1992년
7월호, 61쪽.

목요일마다 축구를 하기 위해 공원으로 갔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했습니다. 모두 신발과 같았고 신발만 신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

열 살짜리 교사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앨마서 17:11)

오랜 자동차 여행이 끝나자 찬스는 이모 집으로 꺾충꺾충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찬스와 남동생은 이모를 만나서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비 이모!” 이모를 껴안으며 찬스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크레용이랑 가위 있으세요?”

바비 이모는 웃으면서 찬스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크레용과 가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모는 저녁밥을 지으며 찬스가 무얼 하는지 슬쩍 들여다 보셨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찬스?” 이모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받은 그림을 색칠해요.” 찬스가 말했습니다. 찬스는 흑백으로 된 부분을 정성 들여 밝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정의 밤을 해도 되나요?” 찬스가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공과가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구나.” 바비 이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찬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비 이모는 같이 사는 친구를 가정의 밤에 초대하셨습니다. 친구분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모여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찬스는 이런 질문으로 공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요?” 그런 다음 찬스는 자신이 색칠한 영의 세계 그림을 들어올렸습니다. 찬스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한 다음 알록달록 색칠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스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계획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비 이모의 친구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요. 뭔데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해요.” 찬스가 씨익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계획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공과가 끝나자 바비 이모는 찬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스, 넌 방금 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배우도록 도와 준 거야. 고마워.”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던 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상한 기분이 들죠?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요.”

“네가 방금 가르친 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성신께서 알려 주시는 거야.” 바비 이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보고 무척 기뻐하고 계실 거야.”

찬스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구원의 계획

“열 살짜리 교사” 이야기에서 찬스는 **“열**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살펴본 다음, 다른 종이에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계획을 그려 보세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오려낸 후, 성구들을 찾아보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의 밤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도 되는지 부모님께 여쭙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상에 태어나 몸을 얻고 시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충실히 따르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아브라함서 3:23~28 참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전세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 중 삼분의 일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시퍼라고 알려진 사탄을 따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선택할 능력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의견 차이로 전쟁이 일어났고 루시퍼와 그 무리는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요한계시록 12:7~9 참조)

전세 생활

교리와 성약 138:55~56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지상에 올 때 우리는 몸을 얻고, 가족 안에서 살게 되며, 우리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들을 받아야 합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고, 청남은 신권 의식도 받아야 합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 등 성전 의식도 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늘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지상 생활

교리와 성약 59:23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몸이 죽더라도 영은 계속 살아서 영의 세계로 갑니다. 영의 세계는 돌아가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영의 세계가 의로운 이들에게는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선지자 엘마가 말했습니다.(엘마서 40:1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와 성약 88:14~17

영의 세계

교리와 성약 138:5~15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몸과 영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복천년이라 불리는 평화로운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왕국, 즉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 중 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싸우고 성신을 부인한 사악한 사람들은 바깥 어둠이라 불리는 곳으로 보내질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15; 엘마서 40:11~12 참조) ■



최후의 심판

니파이후서 9:15~17



별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98~102



달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77~79



해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50~53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단합하라며 호소합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잠들 시간이 되자 그 가족은 저에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 집 막내가 기도를 부탁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녀들과 부모의 표정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이 그 아이의 기도에 신앙과 마음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합이 만드는 기적은 우리가 단합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은 단합으로 굳게 결합될 것입니다.

모사이야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뭉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모사이야서 18:21)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서로에 대해 관대하게 말하십시오. 제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하게 말할 때 평안과 기쁨을 느낄 것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엄숙한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된 교회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몬슨 회장님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단합하고 싶어하는 가족

미로 속 가족들은 단합하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은 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찾아 주세요. 그런 다음, 집 안에 여러분 가족을 그려 넣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산드라 테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많은 화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위해 그분에 대한 지식과 신앙과 기술과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우리도 화가들처럼 상상력을 동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는 마가복음 4장 35~39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큰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고 여러분 주위로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주님께서 일어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세요. 거센 바람이 멈추었을 때 바다가 어떤



됩니다.

- 다른 사람이 니파이후서 27장 23절을 외우도록 돕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본 후 어떤 일이

모습이었는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상상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도 화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을 사용하여 우리가 배운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보일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경전 일지

니파이후서 27장 23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니파이후서 27장 23절을 외웁니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일어났는지를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가정의 밤에서 그림을 보여 주며 이야기를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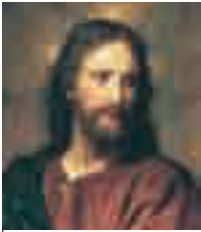
- 이번 달 성구를 외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암송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 63쪽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화가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을 어떤 식으로 상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들을 오려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입니다. 가정의 밤에서, 또는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 주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니파이후서 27장 23절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한 일을 일지에 적어 봅니다.







여호와와 백성들을 구한 에스더 왕후

구약전서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오도록 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전서에서 여호와(Jehovah)는 주로 "여호와"(Lord: 한글 구약전서에서는 Lord가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음-옮긴이)로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앤 엘 맥검

에스더는 몹시 긴장한 채로 수산에 있는 웅대한 왕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궁은 높다란 기둥에 아름다운 깃발들이 걸려 있고, 빨강, 파랑, 검정,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바닥에, 금으로 만든 물잔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커다란 왕좌에 앉아 있는 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새로운 왕후를 택하기 위해 왕궁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때 왕궁으로 온 아름다운 처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개 밑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궁 사람 누구에게도 유대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달리 왕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처녀들 중에 에스더를 선택하여 새로운 왕후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값진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집에 돌아가거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개는 매일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왕궁 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고 대신인 하만이 모르드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모르드개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모르드개는 이를 거역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유대인들이 법을 어기므로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왕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사형시키라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에스더 이야기는
에스더 2~9장에
나옵니다.

부모를 위한 제언

Old Testament Visual Resource DVDs[구약전서 시각 자료 DVD]에는 구약전서를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 300여 편이 들어 있습니다. 세 장으로 된 DVD 세트 (00492)에는 음악, 비디오, 도표,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어린이용 구약전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교회 배부 센터에서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구입할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여러 언어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서 유다 백성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스터에게 그녀가 해야 할 특별한 임무가 있으며, 왕후로 선택된 것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터는 겁이 났습니다. 초대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라 할지라도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신앙을 행사하기로 한 에스터는 모든 유대인이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도록 부탁해 달라고 모르드개에게 말했습니다.

3일 후, 에스터는 왕후 예복을 입고 왕좌가 있는 방문으로 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터를 보고는 함께 이야기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에스터는 왕과 대신인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잔치에서 에스터는 왕에게 어떻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꾸몄는지 들려주며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조서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곧바로 노새와 낙타를 탄 역졸들에게 새로운 조서를 들려 보냈습니다. 조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부림이라는 큰 잔치를 열어 왕후 에스터의 용기를 기렸습니다. ■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도우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6쪽.

따뜻한 품에 안긴 제니퍼

제니퍼 리스
실화에 근거

제니퍼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나지 않게 흐느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니퍼는 방금 오빠와 언니와 다투었습니다. 식료품점에 가신 엄마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제니퍼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애써 꼭 다물어보았지만 여전히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다면 더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니퍼는 기도에 대해 배웠던 초등학교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니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문을 열어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불을 머리 위까지 둘러썼습니다. 제니퍼는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린 다음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빠랑 언니랑 싸운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자, 울적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처 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껴안아 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제니퍼는 이미 언니, 오빠에게 사과를 하고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서는 엄마를 보고 제니퍼는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엄마가 포근히

안아 주시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니퍼는 엄마가 집에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안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영화: 제임스 존슨

우리들 이야기



앨마 에프, 11세, 코스타리카



몬 손 회장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 주라고 모든 어린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곱 남매인데,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부엌을 정리하시는 일을 돕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어머니를 도울 때면 저도 행복하고, 어머니도 행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몬손 회장님과 예수님도 행복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레나 엘, 11세, 브라질 상파울루



어 는 일요일에 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와 형들과 저는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가방을 차에 두고 여동생만 유모차에 태워 집으로 걸어 가신 뒤였습니다. 열쇠를 찾으려고 구석구석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가정의 밤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께서 차를 몰고 오셔서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실수로 열쇠를 가져가신 아빠가 할머니 편에 열쇠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머니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돕기도 하십니다.

사무엘 케이, 5세, 독일



네오 시, 4세, 필리핀

저 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경전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기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모든 어린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초등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애드리얼 티, 5세, 말레이시아



우 리들 이야기에 그림, 사진, 경험, 간증 또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제목란에 "Our Page"라고 쓴 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낼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름과 성별, 나이, 부모님 이름,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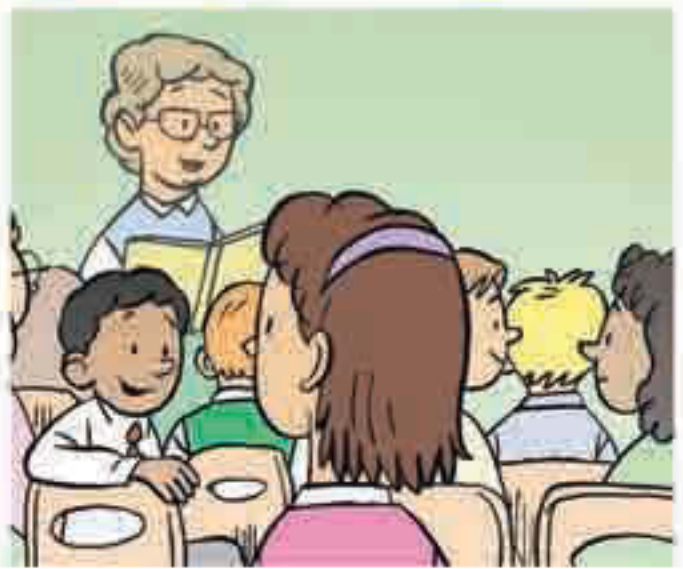
와드나 지부,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써 주세요. 어린이의 사진과 원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서(이메일도 가능)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

새 친구, 옛 친구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잠언 17:17)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1. 일요일 아침, 리사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와드 경계가 바뀌어서 리사는 오늘부터 새로운 와드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리사가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3. 리사는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친구들도 있었지만 새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공과 시간에 리사와 아이들은 활동을 하며 서로 이름을 익혔습니다. 새 친구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4. 공과가 끝난 후, 리사는 복도에서 기다리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보았습니다.

엄마, 생일 때 새 친구들도 초대해도 돼요?

물론이지!



5. 그 주에 리사는 엄마와 함께 예전 와드와 새 와드 친구들에게 줄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6. 리사의 생일 날, 모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다시 했습니다.

7.

재미있었니?

네! 옛 친구들도 있고, 이젠 새 친구들까지 생겼어요!



새로운 친구 찾기

리사는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리사가 새 친구를 찾도록 우리가 도와줄까요? 이 그림에 숨어 있는 모든 어린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부모를 위한 제언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활동을 사용하여 자녀들이 친구 사귀는 방법을 알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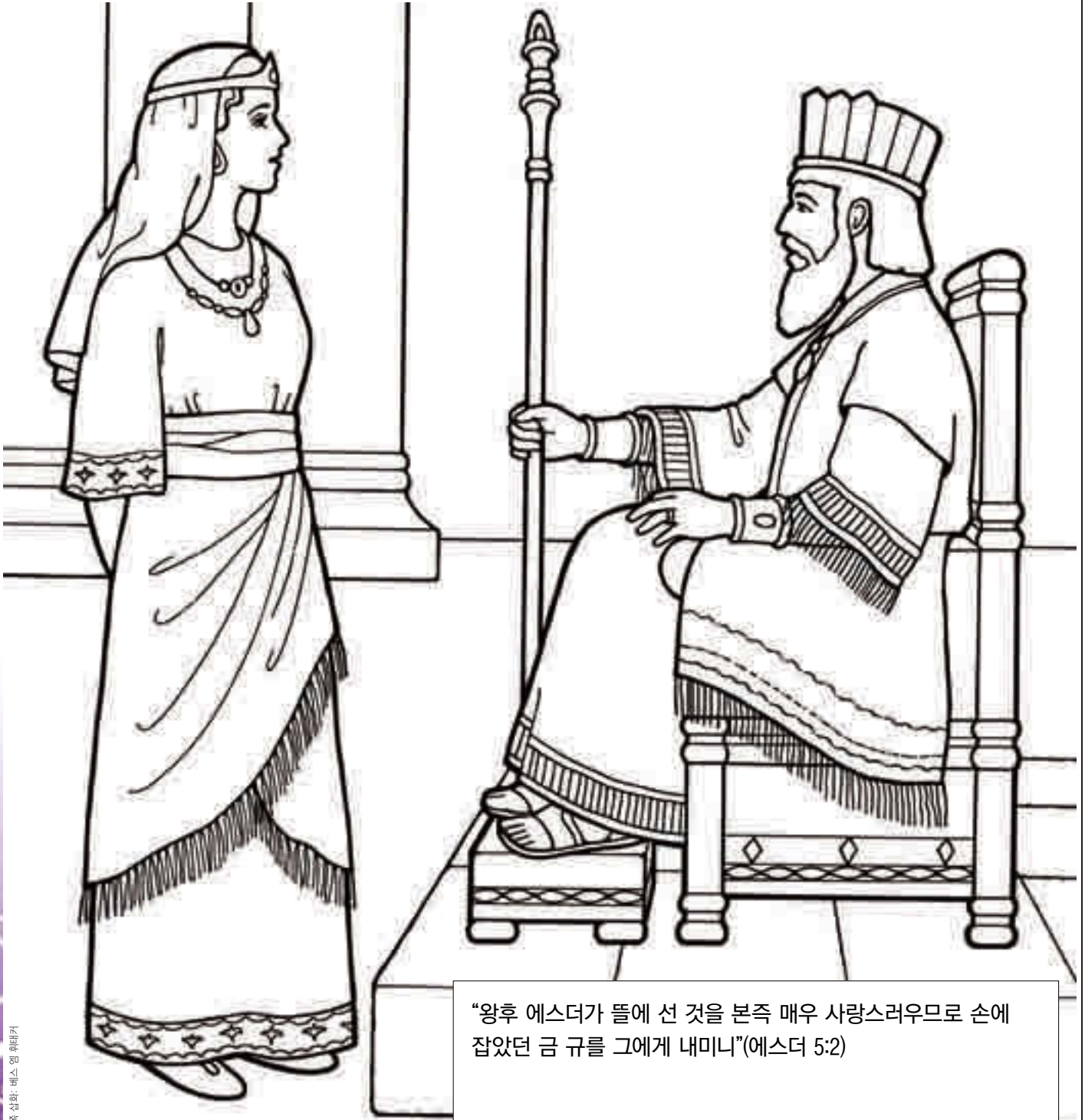
“새 친구, 옛 친구”(68~69쪽) 이야기를 읽은 후 자녀들이 이 활동을 완성하도록 돕는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녀에게 묻는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 데 약간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른 부모들과 상의해 보고 그 집 아이들을 여러분 가정으로 초대하여 여러분 자녀와 놀게 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놀이는 숨바꼭질이다. 숨바꼭질은 한 아이가 눈을 감고 20까지 세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근처에 숨는 놀이다. 술래가 숫자를 다 세면 숨어 있는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다.

주

1. Gordon B. Hinckley, “Strengthening Each Other”, *Tambuli*, 1985년 6월호, 2쪽.

왕에게 간청하는 에스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에스더 5:2)

하나님과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심하며 신앙으로 이 책임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 모가 받은 가장 중요한 책임 한 가지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부모는 [자녀, 즉 아들과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어머니께서 70년 전 미국 뉴욕 시 브루클린에서 힘있게 가르쳐 주시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침례를 받고 아직 물에 젖은 침례복을 입고 있는 저를 어머니는 침례반 앞에 둔 녹슨 접이식 철제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어머니는 신권 권세로 집행된 침례가 중요하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제 침례 성약의 목적과 순종의 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기운을 느꼈으며 평생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잠시 후에 아버지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실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제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합당하고 진실하며 계명에 충실하다면 제 생애 동안 성신이 저와 함께하며 인도와 지침을 줄 것이란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머니께 그토록 중요한 가르침을 받은 그 순간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가르치는 순간이 자녀들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도록 도와야 할 우리 의무가

긴박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신앙과 간증의 기초가 놓일 때 자녀들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네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울지니라

주님 사업의 목적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모세서 1:39)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교리와 성약 68:25)를 가르쳐 이 위대한 사업을 완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1787~1842)가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은 점을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계명에 따라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저 사악한 자가 아직도 너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니, 이것이 네 고난의 이유니라.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게 주노니, 만일 내가 건짐을 받고자 하면 네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울지니라. 이는 네 집에 옳지 아니한 일이 많이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93:42~43)

가정에서 빛과 진리를 가르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의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불화를 겪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에 질서를 세울 영적인 힘과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학문의 집

경전은 “학문의 집[을] 세우라”(교리와 성약 88:119)라고 명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들에 대해 맡고 있는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구주께 집중시키십시오. 신앙과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구주를 믿는 우리 간증을 강화시킨 구절이나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속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속죄가 우리 일상 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축복이 될 수



개인 발전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PersonalProgress.lds.org를 방문한다. 또한 New Era, 2010년 1월호 32~35쪽에서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가 전한 “What’s New in Personal Progress”와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1월호 74~75쪽에서 헤더 휘틀 자매가 전한 “한 명의 정결한 청녀가 세계를 한꺼번에 변화시켜”를 참조한다.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알았습니다. “종종 부친이 영생[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노스서 1:3)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용사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엘마서 56:47) 우리는 니파이인들이 남긴 다음 말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모범으로 인도하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모로 볼 때 말보다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잔뜩 화가 나서 꾸짖으면서 자녀에게는 순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며, 상냥한 말씨와 웃는 얼굴, 친절찬 목소리, 맑은 눈빛을 요구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터무니없는 일입니까!”² 자녀들은 우리 행동에서 그러한 모순을 발견하고 그와 유사하게 행동하는 자기 모습을 정당화하려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자녀들은 우리가 교회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능한 경우 성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관심 어린 마음과 동정심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가? 자녀들은 우리 행동을 보면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느끼는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간증의 기초 위에서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모범을 보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습관을 기르십시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주님의 영을 가정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주님의 영을 불러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과 같은 “작은 일들”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활 습관으로 기른다면 자녀들의 간증이 커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가정에서 길러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매체를 활용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표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디지털 매체가 출현하면서 저속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교훈적인 내용을 접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과 모범으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신앙개조 제13조) 것들을 추구하도록 권유합니다.

의미 있는 개인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영위하면 신앙과 간증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목표를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전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한다면 자녀들도 평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경전을 참조하거나 경전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기회를 포착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 개정판

교 회 청남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제일회장단은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 개정판을 발표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일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특정한 활동이나 성취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합당한 아버지와 신권 소유자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 개정판은 청남들이 간증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신권 의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우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 개정판은 교리와 성약 107편 99절에 기초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할지어다.]” 이 프로그램은 청남들이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해서 얻은 경험을 부모, 정원회 회원, 지도자들과 나누도록 권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 개정판에는 신체적, 교육적, 사회적 발전과 연관된 활동들도 수록되어 있다.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활동들은 스카우트 활동과 우위를 가리기보다는 스카우트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다.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청남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부모와 고문들에게 청남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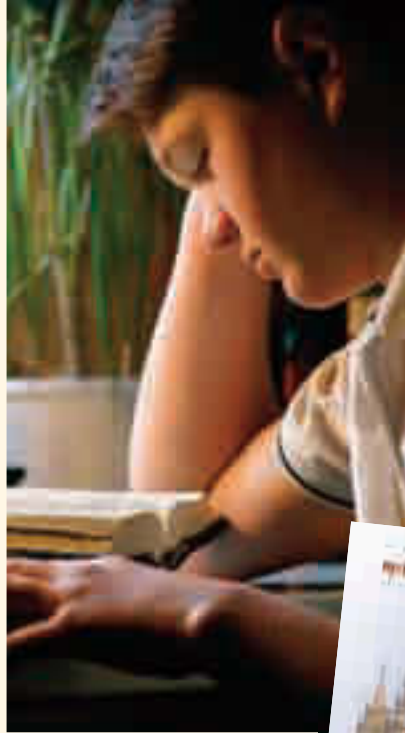


가령, 식사 시간은 부모와 자녀가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훌륭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읽고 있는 경전 말씀에서 어떤 점을 궁금해합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나누고 그 구절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야기 주제에 포함시키고, 자녀들이 교회 잡지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십시오. 훌륭한 건축가는 좋은 연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압니다. 좋은 연장을 사용하면 버거워 보이는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부모는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자녀가 신앙과 간증의 기초를 쌓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구 중 하나는 청남들을 위해 새로 개정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최근에 개정된 개인 발전 프로그램도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및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움을 준다면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정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및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목표와 경험, 계획을 세우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도록 권고합니다. 부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리아호나 및 Ensign, 2010년 5월호 136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이 새롭게 발표되다”를 참조하거나 DutyToGod.lds.org를 방문한다. 이 사이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소책자 전자파일과 청남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 있다.

이것은 자녀와 함께 복음을 이야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부모 자녀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꼭 형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기회는 “자연스럽게 [격식 없이] 주고 받는 대화”³ 속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개정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및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익히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도록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도와주십시오. 아들과 딸과 함께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자녀들의 신앙과 간증의 기초를 다지십시오.

이 교회에 속한 부모로서 이러한 제안을 따르면서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잘 견뎌 낼 신앙과 간증의 기초를 놓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돕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결속되는 유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할]”(교리와 성약 93:40)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겠다고 결심하며 신앙으로 이 책임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Ensign, 1995년 11월호, 102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173쪽.
 3.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아론 신권 소유자(소책자, 2010년), 98쪽.

애독자 편지

필요하기도 전에 도움을 받았습시다

저는 특별히 필요한 기사가 없더라도 잡지에 있는 모든 기사를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호에 실린 “산후 우울증 관리: 복음의 관점” 기사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해 10월에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제게 나타난 증상을 즉시 알아차렸고 기사에서 제안한 대로 재빨리 필요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리아호나는 단순한 잡지가 아닙니다. 리아호나는 안내 책자이자 지도이고 지침이자 나침반입니다.

베르사 비올라 레티즈 에스피노, 멕시코

우리의 믿음

저는 새롭게 단장한 리아호나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새로운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는 이 기사가 지식과 힘을 얻는 훌륭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잡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나탄 드 올리베이라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 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지십시오”, 12쪽: 공과를 하면서, 기사에 나오는 성전 추천서 접견 주제들을 토론할 수 있다. 여러분이 주제를 읽는 동안 가족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가족 모두에게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유한다.

“리하이의 꿈에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26쪽: 가족과 함께 기사를 다시 살펴본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말씀을 마치며, 물몬경에서 니파이전서 8장과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다른 구절들을 읽어 보라고 권고했다. 이 성구들을 읽고 패커 회장이 한 약속을



음미해 본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목으로 그를 보내 주셨다”, 48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가족들에게 자동차에 있던 남자가 선교사 토론을 반기로 결심한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후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주께서 행하실 방법대로 행할 수 있을지 토론하거나 역할극으로 표현해 본다.

“열 살짜리 교사”, 58쪽: 이야기를 들려준 후 가족들에게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이며, 어떤 복음 주제를 가르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가족들이 가르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의 밤이나 기타 상황에서 가르칠 기회를 준다.

커지는 간증, 늘어나는 선교사 기금

교회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저축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알라나(10세)와 울릭(7세)과 함께 특별한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임 선교사로 나가려면 저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후 아이들이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돼지 저금통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믿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울릭은 동전이란

동전은 모두 모아 저축합니다. 두 아이 모두 친척들에게서 받는 돈을 모조리 저축합니다. 울릭은 석 달 만에 첫 달치 선교사 기금을 내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알라나도 머지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받은 돈에서 반드시 십일조를 냅니다.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봉사와 희생에 관한 간증을 뿌리내리고 키우는 과정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루이즈 페레이라 및 안드레이라 페레이라, 브라질 상파울루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

기억에 남는 가정의 밤 이야기를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십시오. ■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 일회장단은 2010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변경을 발표했다. 별도 표기된 사람을 제외한 지역 회장단의 모든 구성원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또는 제이 정원회 회원들이다.

칠십인 회장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전 지역 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 북미 남서



스티븐 이
스노우
2. 유타 북
3.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4. 유타 남



월터 에프
곤잘레스
5. 북미 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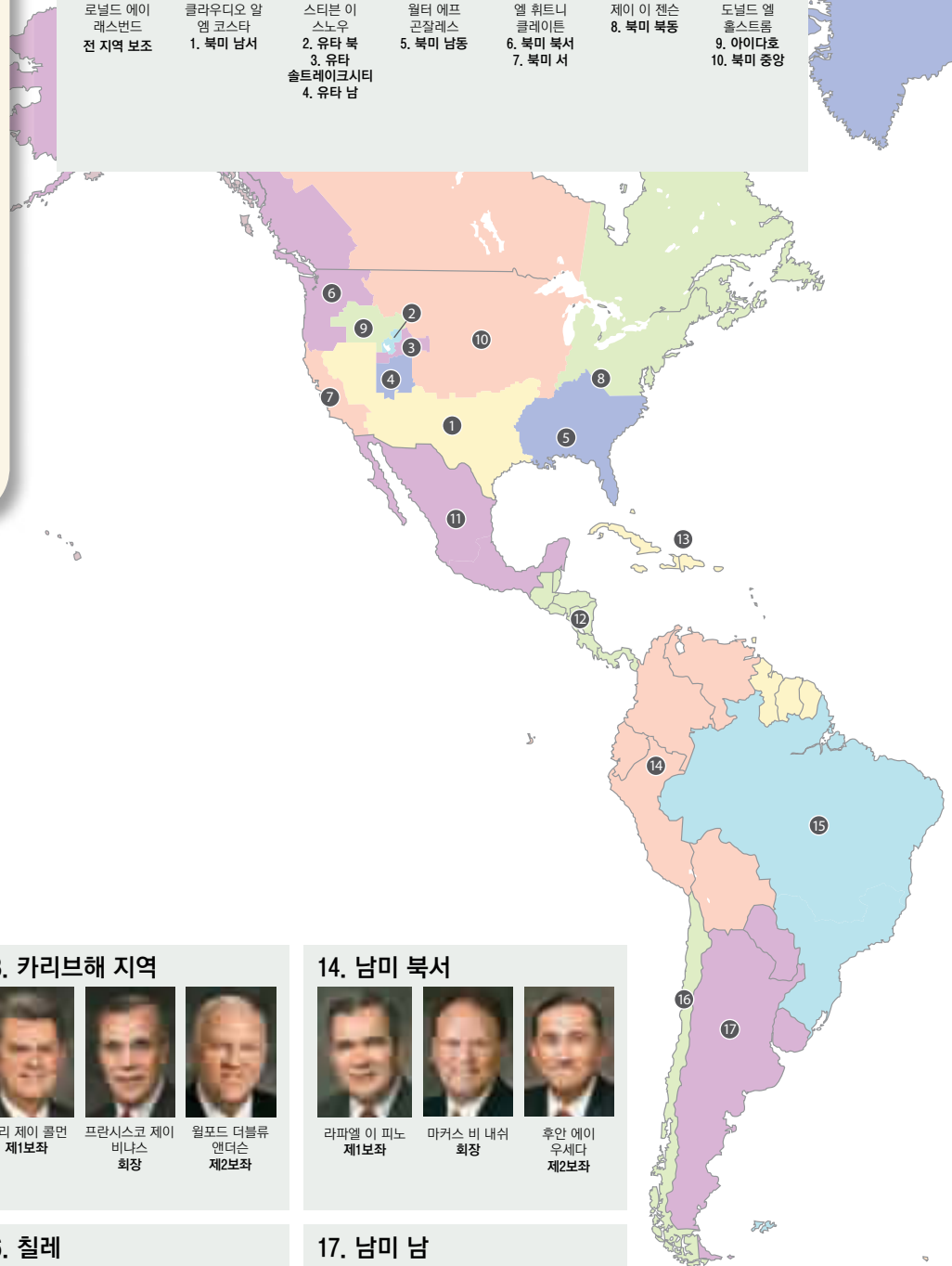
엘 휘트니
클레이튼
6. 북미 북서
7. 북미 서



제이 이 켄슨
8. 북미 북동



도널드 엘
홀스트롬
9. 아이다호
10. 북미 중앙



11. 멕시코



벤자민 데 호요스
제1보좌



다니엘 엘 존슨
회장



옥타비아노
테노리노
제2보좌

12. 중미



엔리케 알
발라벨라
제1보좌



돈 알 클라크
회장



제임스 비
마르티노
제2보좌

13. 카리브해 지역



게리 제이 콜먼
제1보좌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회장



윌포드 더블류
앤더슨
제2보좌

14. 남미 북서



라파엘 이 피노
제1보좌



마커스 비 내쉬
회장



후안 에이
우세다
제2보좌

15. 브라질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제1보좌



울리세스
소아레스
회장



자이로
마자리도
제2보좌

16. 칠레



로렌스 이
코브리지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회장



조지 에프
제블로즈
제2보좌

17. 남미 남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제1보좌



머빈 비 아홀드
회장



브래들리 디
포스터
제2보좌

*지역 칠십인

18. 유럽



제럴드 코세 제1보좌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게 회장
호세 에이 테제이라 제2보좌

19. 유럽 동



래리 알 로렌스 제1보좌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회장
알렉산드르 엔 만조* 제2보좌

20. 중동/아프리카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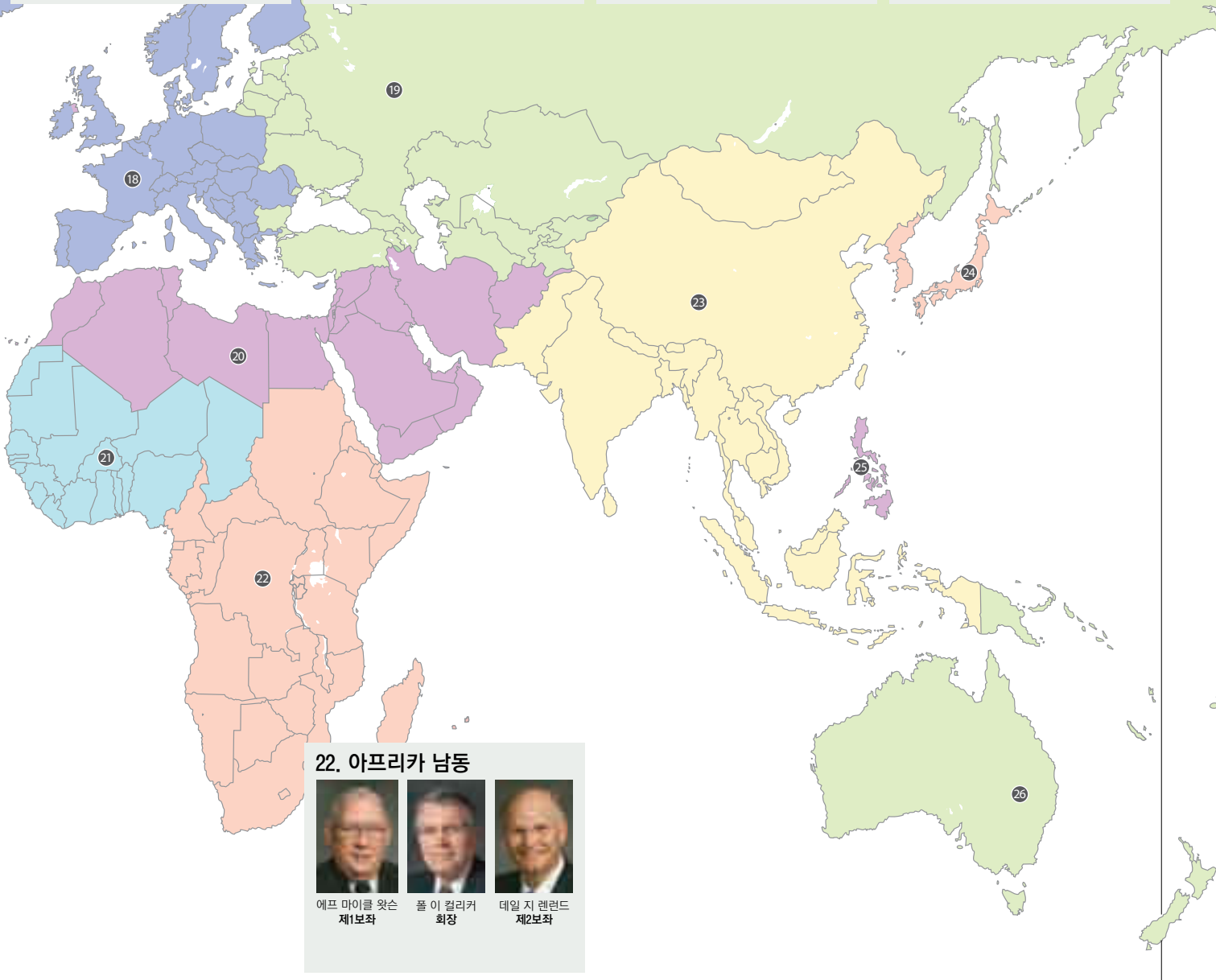


브루스 디 포터
폴 비 파이퍼
본부 관할

21. 아프리카 서



존 비 디슨 제1보좌
크레이그 에이 카튼 회장
조셉 더블류 시타티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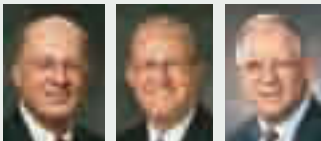


22. 아프리카 남동



에프 마이클 왓슨 제1보좌
폴 이 클리커 회장
데이 지 랜렌드 제2보좌

23. 아시아



켄트 디 왓슨 제1보좌
앤소니 디 퍼킨스 회장
칼 비 프랫 제2보좌

24. 북 아시아



최윤환 제1보좌
게리 이 스티븐슨 회장
고이치 아오야기 제2보좌

25. 필리핀



고원웅 제1보좌
키스 알 에드워즈 회장
마이클 존 유 테 제2보좌

26. 태평양



제임스 에이 해물러 제1보좌
태드 알 폴리스터 회장
브렌트 에이치 넬슨 제2보좌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카렌 폴

나는 캐나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열세 살 때 아버지가 실직하시면서 우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에드먼턴으로 이사했다. 이사한 지 몇 달 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격렬하게 다투셨고, 그 일로 어머니는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나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졌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술과 약물에 의존했다.

그때 마침 선교사들이 찾아왔다. 그곳 와드에 다니는 가족들을 접하며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보이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나는 열여섯 살에 침례를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되어 첫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의지했던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고, 생활 방식도 바꾸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와드 회원들은 그 자리를 새로운 우정으로 채워 주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예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때마침 선교사들이 침례 성약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고해 주었다. 나는 마지못해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나가는 밧줄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월계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와드에는 훨씬 더 자각 있는 월계반 반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 내 부름이 발표되자 한 와드 청년이 불평을 늘어 놓았다. “어떻게 네게 부름을 줄 수 있지? 넌 교회에도 잘 안 나오잖아. 네가 아는 게 뭔데?”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아는 게 없었다. 내 부름 때문에 많은

월계반 반원들이, 그리고 나도 저활동이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다. 밧줄 끝에 매달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나는 월계반 고문인 말린 에반스 자매님을 만나 누군가가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자매님은 내가 부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안심시키셨다. 그리고 내 곁에서 지지 않고 일하셨다. 나는 맡은 책임을 배우기 위해 자매님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갔다. 자매님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마침내 떨지 않고 모임을 사회할 수 있었다.

한번은 에반스 자매님이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밧줄 끝에 매달리게 되거든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자매님은 밧줄은 인생을 상징하는데,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하셨다. 매듭은 복음에 충실하겠다는 결심과 그 결심으로 얻는 안전을 의미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 교훈을 명심했다. 낮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저녁시간과 토요일에는 일을 하던 시절이었다. 등록금, 공과금, 책, 의복, 방세, 식비를 스스로 해결했다. 밧줄 끝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일 때도 여러 번 있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낼 만큼 능력 있는 아이였던가? 아니다. 난 그저 매듭을 묶고 매달렸을 뿐이다.

현재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네 자녀를 두었다. 자녀들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성전에 다니고 있다. 나는 청년 조직에서 역원으로 봉사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반스 자매님에게서 얻은 교훈을 청소년들과 나눈다.

자매님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매듭을 묶고 매달리라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풍성한 축복은 없었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말씀

잃은 양, 앤 시 와이에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4~7)



십 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리하이의 꿈이나 시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에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속에
나옵니다.”

“리하이의 꿈에 우리 모습이
나옵니다”, 26쪽 참조.